

석사학위논문

한국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지명 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손 정 삼

2008년 8월

한국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지명 분석

지도교수 오 상 학

손 정 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8월

강 영 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년 8월

An Analysis of Place Names appeared in
Korean popular songs

Son, Jeong-Sam
(Supervised by Professor Sang-Hak Oh)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08.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committee, Tae-Ho Kim, Prof. of Geography Education
Sung-Dae Song, Prof. of Geography Education
Sang-Hak Oh, Prof. of Geography Education

Geograph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한국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지명 분석

손정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오상학

대중가요는 사회학, 국문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 혹은 단어, 방언 등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지리학에서 대중가요를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는 보이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중가요와 지리학을 접목시켜 한국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지명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0여 곡의 대중가요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250여 곡의 지명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대중가요는 지명이 제목에 나오는 경우와 노랫말에 나오는 경우를 구분하였다. 3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별로 지역적 분포, 유형별 분석(인문지리요소, 자연지리요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현대에 올수록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지명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지명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중국, 일본, 미국 등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만이 대중가요로 불러 지리적 편향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지명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가 급속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의 지명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의 수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국가적으로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지명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도시나 지역 단위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보다 작은 스케일의 지역지명이 대중가요에 많이 등장할 경우, 가치 있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2008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차 례>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4
3. 이론적 배경	6
1) 대중가요에 대한 선행연구	6
2) 지명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7
II. 한국 대중가요의 개관	9
1. 지역적 분포	9
2. 유형별 분석	12
1) 인문지리적 요소	12
2) 자연지리적 요소	13
III. 1960년 이전시기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지명 분석	15
1. 지역적 분포	15
2. 유형별 분석	22
1) 인문지리적 요소	22
2) 자연지리적 요소	31

IV. 1961년~1980년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지명 분석.....	39
1. 지역적 분포.....	39
2. 유형별 분석.....	43
1) 인문지리적 요소.....	43
2) 자연지리적 요소.....	50
3) 팔도유람 지명분석.....	55
V. 1981년 이후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지명 분석.....	58
1. 지역적 분포.....	58
2. 유형별 분석.....	61
1) 인문지리적 요소.....	61
2) 자연지리적 요소.....	66
VI. 한국 대중가요에 나타난 지명 분석 종합.....	69
1. 지역적 분포.....	69
2. 유형별 분석.....	72
1) 인문지리적 요소.....	72
2) 자연지리적 요소.....	74
VII. 결론 및 제언.....	76
※ 참고문헌.....	80

<지도 차례>

<지도 1> 1960년 이전 대중가요 제목에 나타난 전국 지명분포.....	18
<지도 2> 1960년 이전 대중가요 노랫말에 나타난 전국 지명분포.....	18
<지도 3> 1960년 이전 대중가요에 나타난 서울특별시 지명분포.....	20
<지도 4> 1961~1980년 대중가요 제목에 나타난 전국 지명분포.....	41
<지도 5> 1961~1980년 대중가요 노랫말에 나타난 전국 지명분포.....	41
<지도 6> 1961~1980년 대중가요에 나타난 서울특별시 지명분포.....	42
<지도 7> 팔도유람에 나타난 남한의 지명분포.....	56
<지도 8> 1981~2006년 대중가요 제목에 나타난 전국 지명분포.....	59
<지도 9> 1981~2006년 대중가요 노랫말에 나타난 전국 지명분포.....	59
<지도 10> 1981~2006년 대중가요에 나타난 서울특별시 지명분포.....	61
<지도 11> 전 기간 대중가요 제목에 나타난 전국 지명분포.....	69
<지도 12> 전 기간 대중가요 노랫말에 나타난 전국 지명분포.....	69
<지도 13> 전 기간 대중가요에 나타난 서울특별시 지명분포.....	79
<지도 14> 대중가요에 나타난 세계 지명분포.....	72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대중가요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대중의 약간의 관심으로도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원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외국곡을 변안하여 부르는 경우도 있다. 대중의 경험이나 감각이 전문적인 틀에 걸리지 않고 작품에 그대로 투영되기에 그 시대의 시대상을 알려주며, 그 시대에 살았던 조상들의 공통적인 생각과 사상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러한 매력을 가진 대중가요는 사회학, 국문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 혹은 단어, 방언 등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지리학에서 대중가요를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는 보이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중가요와 지리학을 접목시켜 한국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지명을 분석하려 한다.

일반적인 대중가요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에 대중가요가 보급된 것은 일반적으로 1800년대 중엽 김옥균에 의해 신문화의 도입이 시도되던 갑신정변을 전후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 갑오농민전쟁(1894~1895) 시기에 창작된 《녹두꽃》도 현대 가요의 시초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900년대 초와 1910년대에는 일제의 강점이 시작되는 시기로 이렇다 할 대중가요들이 창작되지 않았다. 일본가요의 영향을 받은 《부모은덕가》, 《권학가》 등 계몽적인 참가만이 불려졌다.

1920년대 이후부터 1940년대 초까지 창작되어 불렀던 가요들을, 계몽기에 창작되어 불렀다고 하여 흔히 ‘계몽기 가요’라고 한다. 이 시기에 불려진 노래들 가운데는 일제가 한민족을 정신적으로 타락시키려는 의도 하에 퍼뜨린 염세가요들도 있었으나, 우리 민족이 즐겨 부른 노래들 가운데 참다운 애국·애국가들과 은유적으로 조국 광복을 기다리는 민족가요들도 많았다. 1941년(제2차 세계대전) 이후는 획일적인 정책 하에서 일본 군가만을 불려야 했던 한국가요의 암흑기로, 한국 청년의 출정을 미화한 노래 《아들의 혈서》를 매일 방송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는 일제 강점 하에서 한민족의 비참한 운명과 일제 식민통치의 야만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1940년대 중엽부터 1950년까지는 대한민국의 광복의 기쁨 속에서 대중

가요가 태어났고, 일제의 압박 속에서 벗어나 다양한 내용의 가요가 자유롭게 창작되었다. 8·15광복의 기쁨도 38선의 갈림으로 덮여지고 그 38선의 비보를 노래한 《가거라 38선》이라는 냇두리의 되풀이로 감상주의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38선을 넘어온 실항민들은 《꿈에 본 내 고향》, 《한 많은 대동강》 등을 애창하며 실항의 괴로움을 달래었다. 한국전쟁 중에는 《전우야 잘 자라》는 공전의 히트를 하여 복진하는 국군과 더불어 전국에 널리 퍼졌고, 1·4후퇴 이후 실항민의 쓰라린 생활고의 현실은 《굳세어라 금순아》, 《이별의 부산정거장》, 《단장의 미아리고개》, 《비내리는 호남선》 등에 표현되어 널리 애창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중가요는 비틀스음악의 영향과 미국의 팝송, 그리고 로큰롤 등이 젊은 층에 파고들어 미국의 영향이 매우 커졌다. 주한 미군 계통에 종사하던 팝송가수들이 일반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최희준·박형준·위키 리 등이 이때에 활약하였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자니브러더스·김시스터스와 같은 남녀 보컬 팀의 등장이다. 1962년 민간방송의 개국으로 가요계는 전파매체의 혜택을 받게 되어 신인가수의 등용에서부터 인기가수 순위가 방송출연빈도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시대가 되었다. 방송에 힘입어 노래들이 레코드의 매출을 증가시켰고 지방으로 확산되어 갔다.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와 더불어 일본 대중문화의 한국정착이 두드러지면서 일본의 엔카(演歌)풍이 대중에게 폭넓게 접근해갔다.

1970년대의 특징인 통기타와 청바지는 소위 ‘청년문화’라는 낱말을 낳게 할 만큼 외국가요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대중가요가 활자매체의 후원을 받아 송창식, 윤형주 등의 싱어송라이터들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베트남전쟁을 전후해서 동남아시아와 멀리 유럽이나 미국 등지로 유능한 가수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나 패티 김, 윤복희 등이 활약하였고 베트남이 대중가요의 주소재가 되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MBC-TV 주최로 매년 대학가요제가 열려 통속적 가요계에 신선한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대학생들의 창작가요가 가요계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발전하면서부터 방송전과를 통해 듣는 가요에서 보고 듣는 가요로, 가요의 개념이 크게 변화해갔다. 1990년대의 가요는 LP레코드에서 콤팩트디스크(CD)로 발전하여 가요의 영상화

(映像化)시대로 돌입하는 한편 미국의 랩(rap)과 자메이카의 토속적인 음악을 빌려온 레게(reggae)등 다양한 음악 장르가 들어와 대중가요로 발전했다. 2000년대에는 위성방송, 케이블 TV, DMB, MP3 등의 확산으로 대중가요의 흐름이 예측하기 어렵게 발전되고 있다(이영미, 2006).

대중가요는 대중들이 쉽게 부르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노래이므로 일정한 지리적인 공간에 살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구성원의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대중가요에 지역명¹⁾이나 지역경관명이 들어가 있다면 그 시대의 중요관심사가 그 지역이나 경관에 쏠려 있고, 사회구성원의 지리적 지평이 그 지역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1960년부터 1980년까지의 대중가요에서 베트남과 사이공이라는 지명을 대중가요의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베트남 전쟁에 대중의 관심 쏠려 있고 지리적 지평이 국내에서 베트남까지 확장되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대중가요는 지리적인 공간 안에서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공통의 가치관 속에서 만들어지므로 특정한 지역명칭, 자연지리경관, 인문지리경관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유달산, 부산항과 같은 지역명과 경관명칭은 그 시대의 특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대중가요의 제목과 노랫말에 사용되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대중가요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한민족 전체, 그리고 주변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지역의 대표성을 얻게 하였다. 이에 각 시대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명, 지역경관명이 상징적으로 녹아 있는 대표적인 대중가요를 선택한다. 그리고 시대별로 지역적 분포와 유형별 분석을 통해, 시대별 경향성을 살펴보고 특정 지명이 들어간 대중가요를 분석하려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한국인이 즐겨 부른 대중가요를 모아놓은 책 4권을 중심으로 하여 지명이 들어간 제목과 노랫말을 추출하였다. 금영과 태진 미디어의 노래방 제목 찾기 기능을 통해 보충하였다. 지명과 경관명이 사용된 대중가요를 시대별로 추출하였다. 지역적 분포, 유형별 분석(인문지리요소, 자연지리요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대중가요에 자주 등장하는 지명을 분류하고 범주화하여 하위영역을 만들었다. 인문지리요소는 고유명사 혹은 지역명이 들어간 행정명, 항구(포구), 역(철도), 교량(다리), 역사지명, 기타로 분류하였다. 자연지리요소는 고유명사 혹은 지역명이 들어간 하천, 바다, 산, 고개, 섬,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특수한 사례인 팔도유람을 분석하였다.

시기별 구분은 대중가요의 흐름을 크게 개시기부터 1960년까지, 1961년부터 1980년까지, 1981년 이후의 3시기로 나눈다. 1960년과 1980년 이 두시기가 기준시기가 된다. 1961년은 박정희 정권이 5·16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1962년부터 1차 경제 개발계획을 시작해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1979년 12.12 쿠데타와 1980년 5 18 광주민주화 운동을 무력진압을 통해 1981년 전두환 독재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 시기는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정권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기 위해 대중의 관심을 돌리고 우민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3S정책을 추진하였다.²⁾ 또한 1962년 민간방송국의 개국과 1980년대 흑백 TV에서 컬러 TV으로의 교체는 대중사회와 대중문화의 전환점이 된다. 즉 1960년과 1980년은 한국 현대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가요 개시기 이후 지리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대중가요를 추출한다.

둘째, 대중가요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명이 들어간 모든 대중가요를 지역별, 유형별로 각각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대중가요 개시기부터 1960년까지, 1961년부터 1980년까지, 1981년 이후, 3시기의 시대구분에 따라 지역명이 들어간 대중가요를 지역별분포를 살펴보고, 유형별로 분석한다.

넷째,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한다.

현재 발표된 대중가요는 수 만곡(금영 약 22,000곡, 태진 약 18,500곡)에 달하고 지금도 새로운 대중가요가 발표되고 있다. 이에 수 만곡에 달하는 대중가요를 모두 조사하여 분석하지 못하고, 조사대상을 대중들이 즐겨 부른 애창곡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는 대중가요 중에는 발표만 되고 사라지거나 몇 주 동안만 히트를 치다가 사라지는 곡이 많으므로 이러한 곡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앞선 시기에 유행했던 대중가요가 다시 대중의 사랑을 받는 리메이크 곡의 경우에는 처음 유행한 대중가요만 인정했다. 한 음반에는 8곡에서 15곡정도 가요가 들어 있고 대표곡은 1~2곡이 보통인데 대표곡 이외의 것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대중들이 좋아한 애창곡을 개인적으로 선정하기에는 객관적이지 못하므로 조사대상을 대중가요 애창곡을 시대별로 모아 놓은 책인 아름출판사에서 발간한 가요반세기(2006)와 민족 수난기의 대중가요사(최창호, 2000)를 주로 하고, 동 출판사에서 발간한 대중가요 대백과(2007)와 세광음악출판사에서 발간한 대중가요대백과(2006)로 보완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태진미디어(<http://www.tjmedia.co.kr>)와 금영미디어(<http://www.zeuskorea.co.kr>) 홈페이지의 노래방 제목 찾기를 이용하여 보충하였다. 2000여 곡의 대중가요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250여 곡의 지명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를 추출하였다. 출판사의 책을 선정한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 흘러간 대중가요의 가사집을 출판하였으므로 대중들이 즐겨 부르고 좋아했던 대중성이 있는 가요만을 선별하여 책에 실었을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지역 혹은 다양한 내용의 지리적 소재를 담은 대중가요의 경우에는 분류상에 중복을 허용하여 빈도를 알아보았고, 대상 대중가요 분류 시 여러 번 지리적 소재가 나와도 한 대상 내에서는 빈도를 1로 한정하였다.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의 개시기부터 시작된 금지곡은 최초의 금지곡 아리랑부터 시작되어 1996년 사전 심의제가 폐지될 때까지 대중들의 귀를 원천적으로 막아왔고 현재에는 사후심의회로 바뀌었다. 금지곡의 심의기준은 ①국가안보와 국민총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 ②외래 풍조와 무분별한 도입과 모방 ③패배, 자학, 비탄적인 작품 ④선정적인, 퇴폐적인 것 등이다(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mrb.or.kr/>). 이들 금지곡 중에는 사회와 개인을 통제하여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양산되어 민주화나 사회비판적 노래는 금지곡의 딱지가 붙여진 경우가 많다. 1987년 6·29선언 이후 《동백아가씨》, 《아침이슬》, 《독도는 우리 땅》 등 많은 곡이 금지곡에서 해제되었지만 수천 곡의 금지곡이 그대로 남아있다. 현재까지도 금지된 금지곡은 대중가요 선정에서 제외시켰다. 대표적인 예로 광주 관련 대중가요를 들 수 있는데, 1980년 6·10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광주를 소재로 민중가요가 많이 불려 졌지만 심의규정상 금지곡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제외시켰다.

대중가요의 가사는 작사자가 자의적으로 창작하여 대중들이 호응할 경우에 유행하게 되는 경우와 대중들의 인식에 맞추어 작사자가 가사를 써서 대중들이 호응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하지만 작사자와 대중의 상호관계가 완벽하지 않으므로 대중가요의 지명분석이 그 시대의 사회상과 시대상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는 한계를 가진다. 대중가요의 가사는 시와 소설과 같이 은유와 비유 등을 많이 사용해서 유추해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한계를 지닌다. 연구자가 동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기에 대중가요의 지명에 나타나는 시대상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데올로기와 상징을 기존의 문헌을 통해 짐작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대중가요에 나타난 지역지명을 선별하는 데에도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에 반론의 여지가 있다. 모든 대중가요가 아닌 애창곡을 표본으로 하여 조사하였기에 정확도와 신뢰도에서 한계를 가진다. 남북 분단이 된 이후에는 조사대상이 남한에서 유행한 대중가요로 한정되어 북한의 대중가요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를 지닌다.

3. 이론적 배경

1) 대중가요에 대한 선행연구

민충환(2000)은 대중가요 노랫말을 분석하여 대중가요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특징을 밝혔다. 복합어, 색깔, 관용적 표현, 긍정적, 부정적 표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대중가요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대중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친근한 가락과 노랫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송기현(2005)은 대중가요를 위시한 각종 노래가사에 나타난 산의 이미지

연구하였다. 힘찬 기상, 울타리, 이별, 그리움, 한, 눈물의 원인 등 7가지로 나누었다. 이러한 이미지가 생긴 원인은 풍수지리 사상, 독특한 지형, 고단한 민초의 삶 등 5가지로 나누었다.

최상진·조운동·박정열(2001)은 대중가요의 가사를 분석하여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 고향과 타향살이, 인물에 대한 예찬, 세태풍자 등의 주제로 분류하였다.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부정적 귀결에 대한 반응이 수동적 소극적에서 능동적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손태도(2001)는 구비민요에서 대중가요로 넘어가는 상황과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민요라는 민족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대중가요를 만들도록 제안하였다.

이형대(2005)는 일제시기 대중가요를 분석하여 일제강점기의 여성들의 실상을 추론하여 연구하였다. 여성노동자들은 식민모국의 수탈과 자본가의 착취 및 성적 차별이라는 중층적 억압에 시달리고 있다. 대중가요는 이러한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다.

2) 지명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손국자(1998)와 박태화(1999)는 지리학의 주요 개념을 자연과 인간, 공간관계, 분포, 지역, 변천별로 분류하여 고유명과 유형명의 수와 지역적 분포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 촌락 지명에서 지리적인 성격이 상이한 지역 차이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기 위하여 고유명과 유형명이 주요 지리적 개념별 결합 관계를 파악하였다.

최영아(1999)는 부산의 자연마을의 지명 유래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명의 분포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지만, 각 지역의 자료가 골고루 선정·분석되지 않았으며, 구지나 한글지명사전 등의 2차적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수집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박경준(2003)은 자연 촌락명을 연구 대상으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적·역사적 요소를 내포하면서 우리 고유의 말로 표현되는 지명에는 자연환경이 잘 반영될 것으로 보았다. 지명에 관한 어원과 어미에 기초한 유래 및 분포를 중심으로 지역성 파악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김정미(2003)는 김포시의 행정취락과 자연취락 지명을 수집하고 명명 기반 유형을 분석하여 지역성을 파악했으며, 임종옥(2003)과 오영선(2003)은 지명어의 소재를 기준으로 자연환경 · 인문환경 관련 지명으로 분류하여 그 분포의 특성과 유래를 분석 · 정리하였다.

이혜은(2000)이 지역 문화 특성 규명에 목적을 두고 미국의 전국 도로 지도에 수록되어 있는 지명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명 업무 현황 전반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하여 그동안 지명 연구에서 부진했던 현대 지명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살피기 위한 연구도 행해졌다.

양보경 · 정치영(2006)은 현대 한국 지명의 행정적 · 법적 · 제도적 절차와 검토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찾아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영희(2006)는 북한의 지명과 관련한 연구를 하였다. 활발한 남북경제 협력사업으로 장소의 의미가 커진 개성시의 자연경관 특성을 지명을 통해 연구하였다.

교과서의 지명 분석(국애란, 2002; 최석주, 2003; 박영신, 2004)은 우리 민족이 공유하는 지명이 남북한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통일국가 수립에 있어 세계관과 시각차를 줄이는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분석하였지만, 북한 관련 자료의 접근과 수집의 한계점을 내재하고 있다.

예경희(2005)는 충북 충주호의 지명 분쟁 연구(1998)에 이어 청주 지역의 풍수지형과 풍수 지명을 지명지와 전설지를 비교하여 비보풍수와 단맥풍수 등을 고찰하였다.

전혜경(2007)은 개화기의 여러 지리서에 수록된 세계지리 부분의 내용을 국가 지명 표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성격을 밝히는 접근을 하였지만 분석에 사용된 지지와 지도의 내용 연구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II. 한국 대중가요의 개관

1. 지역적 분포³⁾

	행정구분	행정구역	1960년 이전		1961년~198 0년		1981년 이후		합계	총계 (%)		
			제목	노랫말	제목	노랫말	제목	노랫말				
남한	특별시	서울	14	8	10	7	10	6	34/21	55(33.5)		
	6광역시	부산	3	5	3	1	0	1	6/7	13(7.9)		
		대구	1	0	0	0	0	0	1/0	1(0.6)		
		인천	5	1	2	0	0	1	7/2	9(5.5)		
		광주	0	0	0	0	0	0	0/0	0(0.0)		
		대전	1	0	0	1	0	0	1/1	2(1.2)		
		울산	1	0	1	0	0	0	2/0	2(1.2)		
	9도	경기도	0	0	0	0	0	0	0/0	0(0.0)		
		강원도(남쪽)	0	2	0	0	1	2	1/4	5(5.0)		
		제주도	4	3	1	0	1	2	6/5	11(6.7)		
		충청도	공통	1	1	2	1	0	0	3/2	5(3.0)	
			충청북도	1	1	2	0	0	0	4/1	4(2.4)	
		경상도	충청남도	1	4	1	0	1	0	3/4	7(4.3)	
			공통	2	1	0	2	0	0	4/1	5(3.0)	
			경상북도	1	5	5	0	1	1	7/6	13(7.9)	
		전라도	경상남도	3	3	2	1	0	0	5/4	9(5.5)	
			공통	1	1	0	2	0	1	1/4	5(6.0)	
			전라북도	2	0	1	0	0	0	3/0	3(1.8)	
				전라남도	6	1	2	3	0	0	8/4	12(7.3)
				합계	47	36	35	18	14	14	96/68	164(100)
북한		직할시	평양	1	2	1	1	1	1	3/4	7(20.5)	
	나선		4	1	0	0	0	0	4/1	5(14.7)		
	9도	특급시	남포	0	0	0	0	0	0	0/0	0(0.0)	
		자강도	자강도	0	0	0	0	0	0	0/0	0(0.0)	
			양강도	0	2	0	0	0	2	0/4	4(11.7)	
		강원도(북쪽)	강원도(북쪽)	0	1	0	0	0	1	0/2	2(5.8)	
			공통	0	0	0	0	0	0	0/0	0(0.0)	
		평안도	평안북도	1	0	0	0	0	0	1/0	1(2.9)	
			평안남도	0	0	0	0	1	1	1/1	2(5.9)	
		황해도	공통	2	0	0	0	0	0	2/0	2(5.9)	
			황해북도	0	0	0	0	0	0	0/0	0(0.0)	
			황해남도	2	2	0	0	0	0	2/2	4(11.7)	
		함경도	공통	2	0	0	0	0	0	2/0	2(5.9)	
			함경북도	0	0	0	0	0	0	0/0	0(0.0)	
			함경남도	2	3	0	0	0	0	2/3	5(14.7)	
				합계	14	11	1	1	2	5	17/17	34(100)
				외국	18	0	4	0	0	2	24	24(100)

위의 표를 살펴보면, 시기별로 북한의 지명이 대중가요에 사용된 경우는 25곡, 2곡, 7곡으로 줄어들다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83곡, 53곡, 28곡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 이전에 북한의 지명을 다루는 대중가요가 25곡이나 된 것은 일제강점기에는 남북한이 분단되지 않았다. 1945년 일제강점기가 끝나면서 강제징용 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해외에 나가있던 많은 사람이 귀향하였다. 또한 3·8선의 획정과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 친족과 헤어진 채 얻은 한이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중가요로 표출되게 되었다. 1961년부터 1980년까지 2곡으로 줄어든 것은 반공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군사독재시기로 북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엄격하게 금지된 사회적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981년 이후에 7곡으로 다시 늘어나는 것을 보면 남북관계가 점차 호전되고, 이산가족 상봉 등이 현실화되면서 대중들에게 북한이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경우에는 시기가 지날수록 지명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가 줄어들고 있는 일반적 형태를 띠고 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소수의 정보가 친밀한 관계의 소수에게 천천히 전달되었기에 지역적 공동체의 특수성이 대중에게 영향을 미쳐 대중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하나의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달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의 일방형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중문화가 획일화되면서 대중가요에 지리적 소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식 산업화의 영향으로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이 쇠락하게 되고 수도권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서울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하였다.

남한의 전체 사례수가 164곡인데 반해 북한의 경우에는 34곡에 불과하다. 북한의 지명을 대상으로 한 대중가요 중에서 평양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20.5%이고 평안남도는 5.9%이다. 북한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가 26.4%이다. 남한의 지명을 대상으로 한 대중가요 중에서 서울의 지명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33.5%에 달하고 인천의 경우에는 5.5%이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대중가요가 39%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 대중들의 애창곡 중심으로 조사되었기에 지리적·공간적으로 단절된

북한의 사례수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수도권인 평안과 평안남도가 26.4%이고 남한의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은 39%이다. 이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남한이 북한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대중가요에 지명이 나타나는 상위 1,2위 순위를 보면 북한의 경우에는 평양과 나선(나진·선봉지역)이 각각 20.5%, 14.7%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서울과 부산, 경상남도(동률)가 각각 33.5%, 7.9%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35.2%이고 남한이 41.4%로 나타나 남한이 북한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과 비교해서 상위 1,2위 도시가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경우 함경북도, 황해북도, 자강도, 남포특급시의 경우에 사례가 없고 남한의 경우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사례가 없다. 북한의 행정구역 중 함경북도, 황해북도는 대중들의 소외된 지역으로, 남포는 평양이라는 대도시 인접해 대중들의 인식이 적었을 것이다. 남한의 광역행정구역 중에 광주광역시와 경기도의 지명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는 한 곡도 없다. 이에 반해 전라남도, 서울, 인천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는 나타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전라남도의 문화, 행정, 사회, 교육의 중심지이지만 대중들에게 크게 인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서울과 인천이라는 대도시가 근접했기에 대중들의 인식이 적었을 것이다.

충청, 호남, 영남지방은 거의 균등한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조밀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를 소재로 한 대중가요는 총 11곡으로 강원도(남, 북), 충청북도, 전라북도와 비슷한 수준을 이룬다는 것은 제주도의 지리적 규모와 지역공동체의 규모로 봤을 때는 대중들의 인식도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관광도시로서의 홍보 노력과 독립된 섬으로서의 특수성 등이 함께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2. 유형별 분석

1) 인문지리적 요소

	1960년 이전		1961년~1980년		1981년 이후		합계	
	제목	노랫말	제목	노랫말	제목	노랫말	제목	노랫말
행정명	21	7	11	6	8	5	40	21
항구, 포구	8	2	3	1	0	1	12	4
역, 철도	4	1	1	0	1	1	6	2
교량, 다리	1	5	1	0	1	1	7	6
역사지명	10	7	1	1	3	0	14	8

행정명은 지역적 분석단위로서 광역자치단체단위, 기초자치단체단위 등에서 사용하는 지명이 대중가요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그 지명에 대한 대중들의 인지도를 살펴보려 한다. 목포항, 영도대교와 같이 실제 지명이라 해도 대중들의 관심이 항구와 다리에 맞춰져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한다. 시기별로 28곡, 17곡, 13곡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행정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점차 적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이 대중가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행정명이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대중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고 접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지리적으로 고정된 항구는 물자와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교통로이자 정보의 관문의 역할을 하며, 이 공간의 기능에 따라서 대중의 공간적, 지리적 인식이 변하게 된다. 하지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선박과 활자매체, 구어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상의 교류는 비행기, 전파방송, 인터넷 등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고 그 기능이 줄어들고 있다. 대중가요의 소재로 항구와 관련된 지명을 사용한 경우, 시기별로 10곡, 4곡, 1곡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철도는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교통로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고정되어 있는 선로를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것과 간선철도와 지선철도 사이의 유동적 운용이 어려워 철도가 놓인 일부 지역간의 소통만을 원활하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경춘선, 호남선, 경부선과 같은 선로의 이름에 지역의 이미지가 덧씌워져 대중가요의 소재로 이용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시기별로 5곡, 1곡, 2곡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량의 경우에는 철도나 도로와 같이 넓은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강을 이어주거나 섬을 이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므로 해당 지역을 바탕으로 교량의

이름이 만들어져도 좁은 범위의 공동체만이 교량에 대해 인식하는 문제점이 있다. 대중가요가 흥행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들이 교량을 인식하려면 큰 역사적 사건이나 경제개발, 지역개발과 같은 특수한 시대상과 맞물려야 한다. 시기별로 6곡, 1곡, 2곡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역사지명의 분석은 대중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그 시대의 사회상이나 시대상을 알 알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역사지명은 17곡, 2곡, 3곡으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자연지리적 요소

	1960년 이전		1961년~1980년		1981년 이후		합계	
	제목	노랫말	제목	노랫말	제목	노랫말	제목	노랫말
강, 하천	19	10	4	2	0	2	23	13
바다, 바닷가	1	6	0	2	0	3	3	10
산	2	9	1	2	1	3	4	14
고개	3	1	2	0	0	0	5	1
섬	2	3	4	2	1	1	8	6

강의 분수계를 따라 만들어지는 유역권에 따라 그 지방 고유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지역성이 만들어진다. 유역권의 범위는 매우 넓어서 한강, 낙동강, 금강, 대동강, 영산강 등 큰 하천의 유역권에는 수백만 이상의 사람이 모여 살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유역공동체는 대중을 구성하는 구성원도 되기에 강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가 어색함 없이 불러졌을 것이다. 강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는 시기별로 29곡, 6곡, 2곡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바다와 해안가는 부산과 인천을 제외하면 대도시와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므로 인문지리적 소재인 항구와 더불어 대중들의 관심이 지리, 공간적으로 골고루 안배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좋은 지표이다. 또한 바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바다를 소재로 한 대중가요는 시기별로 7곡, 2곡, 3곡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은 행정구역별로 여러 도에 걸쳐 분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의 시, 군, 도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군 단위, 좁게는 마을 단위로 지역공동체와 오랫동안 함께해 온 대표적인 산이 있기 마련이며, 지역공동

체의 산이 전국적인 대중성을 확보하게 되면 대중가요로 불리게 되어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각 시대별로 어느 지역에 위치한 산이 대중가요로 불렸는지 확인한다면 대중들의 관심이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산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는 시기별로 11곡, 3곡, 4곡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고개는 근본적으로는 산봉우리가 선상(線狀)이나 대상(帶狀)으로 길게 연속되어 있는 산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속하는 자연지리경관이지만 인간의 생활권과 생활권 사이에 형성된 교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인문지리 경관으로도 볼 수 있다. 산맥은 지역과 지역 사이를 단절시키는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고개는 지역을 연결해주는 교통로의 역할을 함으로써 가치를 지닌다. 시기가 지날수록 4곡, 2곡, 0곡으로 고개를 소재로 한 대중가요가 줄어드는 것은, 도로와 철도교통의 발달로 인해 고개의 지역 간 연결성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대중가요는 대중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섬은 바다에 가로막혀 육지와 단절된 공간이며 거대한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아 대중가요의 소재로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이 대중가요의 소재로 사용된다는 것은 대중들의 관심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섬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가 5곡, 7곡, 2곡이 불려 뚜렷한 규칙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Ⅲ. 1960년 이전시기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지명 분석

1. 지역적 분포

국가	행정구분	행정구역	제목에 나타난 지명	노랫말에 나타난 지명	
남한	특별시	서울	lucky 서울, 서울야곡(충무로), 단장의 미아리 고개, 명동 부르스, 삼각산 손님(한양), 저무는 충무로(서울), 소공동 블루스, 남산 나그네, 한양 낭군, 범벅 서울, 종로행진곡, 경성은 좋은 곳	애수의 네온가(명동), 나룻배 처녀(서울), 남원의 봄 사건(한양), 남원의 애수(한양), 물레방아 도는 내력(서울), 엽전 열닷냥(한양) 이별의 부산정거장(서울), 하이킹의 노래(도봉산, 북악산)	
	광역시	부산	울며 헤진 부산항, 이별의 부산정거장(피난살이, 관갓집, 부산사투리), 해운대 엘레지(동백섬4)	대한팔경(해운대), 고향의 그림자(영도다리), 굳세어라 금순아(국제시장, 영도다리), 함경도 사나이(영도다리, 남포동), 항구의 사랑(남포동, 부산극장)	
		대구	비 내리는 고모령		
		인천	이별의 인천항, 제물포 시름, 인천블루스, 애수의 제물포, 연평도 바다로	군밤타령(연평바다)	
		광주			
		대전	대전 부르스(대전발 영시오십분 열차)		
		울산	울산타령(울산아가씨)		
	9도	경기도			
		강원도(남쪽)		마상일기(강원도), 울고넘는 대관령(무산령),	
		제주도	서귀포 사랑, 서귀포 칠십리, 제주아가씨, 제주도 타령	삼다도 소식(제주), 꽃중의 꽃(한라산), 대한팔경(한라산)	
		충청도	공통	충청도 길손	마상일기(충청도)
			충청북도	울고 넘는 박달재	전우야 잘 있거라(추풍령)
		충청남도	만리포 ⁵⁾ 사랑	무영탑사랑, 삼각산 손님(백화산 ⁶⁾), 백마강 달밤(낙화암), 꿈꾸는 백마강(낙화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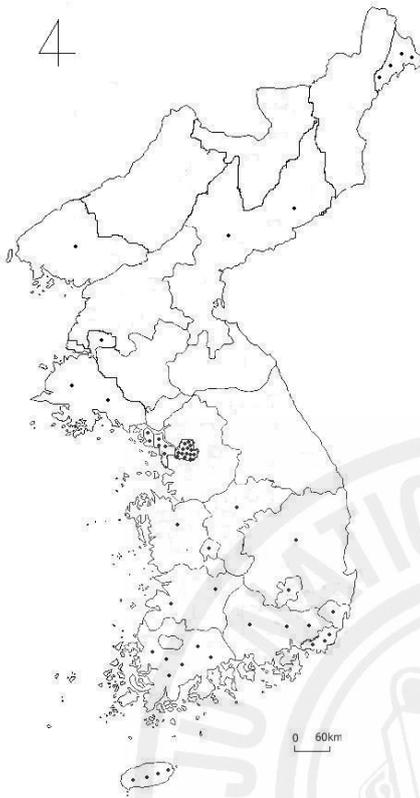
		경상도	공통	경상도 아가씨, 경상도 사나이	마상일기(경상도)
			경상북도	서라벌 달밤에	대한팔경(석굴암), 무영탑사랑(서라벌), 신라의 달밤(불국사, 금옥산), 신라의 북소리(서라벌), 전우야 잘 있거라(낙동강),
		경상남도		돌아가자 하동포구, 남강은 말 없네(진주), 남강의 추억(축석루)	나룻배 처녀(낙동강), 처녀 뱃사공(낙동강), 남강은 말없네
		전라도	공통	비 내리는 호남선	마상일기(전라도)
			전라북도	남원의 봄사건(광한루, 오작교), 남원의 애수	
		전라남도		목포는 항구다(영산강, 유달산, 삼학도, 동백꽃), 목포의 눈물(삼학도, 유달산, 영산강), 눈물의 목포항, 목포의 추억, 영산강 뱃사공	대전 부르스(목포행 열차)
		84	48	36	
북한	직할시	평양	아! 모란봉	꿈에 본 대동강(모란봉), 한 많은 대동강(부벽루, 모란봉), 관서천리(모란대)	
		나선	눈물 젖은 두만강, 추억의 두만강, 두만강 뱃사공, 비 오는 나진항	조선타령(두만강)	
	특급시	남포			
	9도	자강도			
		양강도		꽃중의 꽃(백두산), 조선타령(백두산)	
		강원도(북쪽)		대한팔경(금강산)	
		평안도	평안북도	통군정의 노래(의주)	
		평안남도			
		황해도	공통	황해도 아가씨, 황해도 노래	
			황해북도		
		황해남도		만월대(개성), 선죽교	황성의 적(개성), 황성옛터(개성)
		함경도	공통	함경도 사나이, 함경도 아가씨	
	함경북도				
	함경남도		명사십리, 북청물장수	바다의 교향시(명사십리?),	

				굳세어라 금순아(홍남부두), 함경도 사나이(홍남부두, 동아극장)
		25	14	11
외국		샌프란시스코(금문교, 태평양, 뉴욕), 아리조나 카우보이, 아메리카 차이나타운(태평양), 인도의 향불(갠지스강, 벵갈), 페르샤 왕자(아라비아 공주), 안개 낀 상해, 목단강 편지, 만주의 달, 만주선, 만주신랑, 꽃피는 상해, 북경아가씨, 간도선, 라인강, 베니스의 노래, 상해로 가자, 이태리의 정원, 송화강 썰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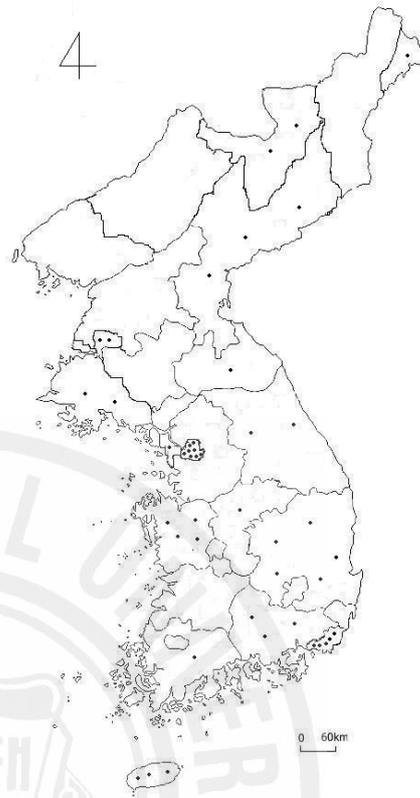
	강이름	제목	노랫말
행정구역별로 지역구분이 어려운 강	압록강	애수의 압록강, 압록강 뱃노래,	통군정의 노래(압록강), 조선타령(압록강)
	대동강	대동강 달밤, 울어라 대동강, 대동강 물결위에, 대동강 달밤,	관서천리(대동강)
	금강	꿈꾸는 백마강, 백마강 달밤(낙화암), 백마강(황산벌), 흐르는 백마강	
	한강	한강	물 새우는 강언덕(한강), 전우야 잘 있거라(한강)
	임진강		남아 인생(임진강)

남한의 행정구역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과 연관된 대중가요는 84곡이
고, 그중 48곡은 제목에 36곡은 노랫말이 연관되어 있다. 북한은 25곡 중에서
14곡이 제목과 11곡이 노랫말과 연관되어 있다. 남북한 전체 109곡의 대중가요
중에서 22곡이 서울과 연관되어 있어 절대적인 서울중심의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지도 1>, <지도2>를 살펴보면 서울에 집중적으로 분포하
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하고 있어 집중도가 떨어진다.

북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적 소재가 대동강, 두만강, 모란봉, 백두



<지도 1> 1960년 이전 대중가요
제목에 나타난 전국 지명분포



<지도 2> 1960년 이전 대중가요
노랫말에 나타난 전국 지명분포

산, 금강산 등 자연적인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남한이 부산항, 인천항, 서울, 영도다리와 같이 대부분 인문적인 소재로 이루어진 것과 대비된다. 북한지역을 소재로 하여 대중가요가 유행한 경우가 25곡으로 다른 기간 보다 많은데 남북분단 전에 유행하던 대중가요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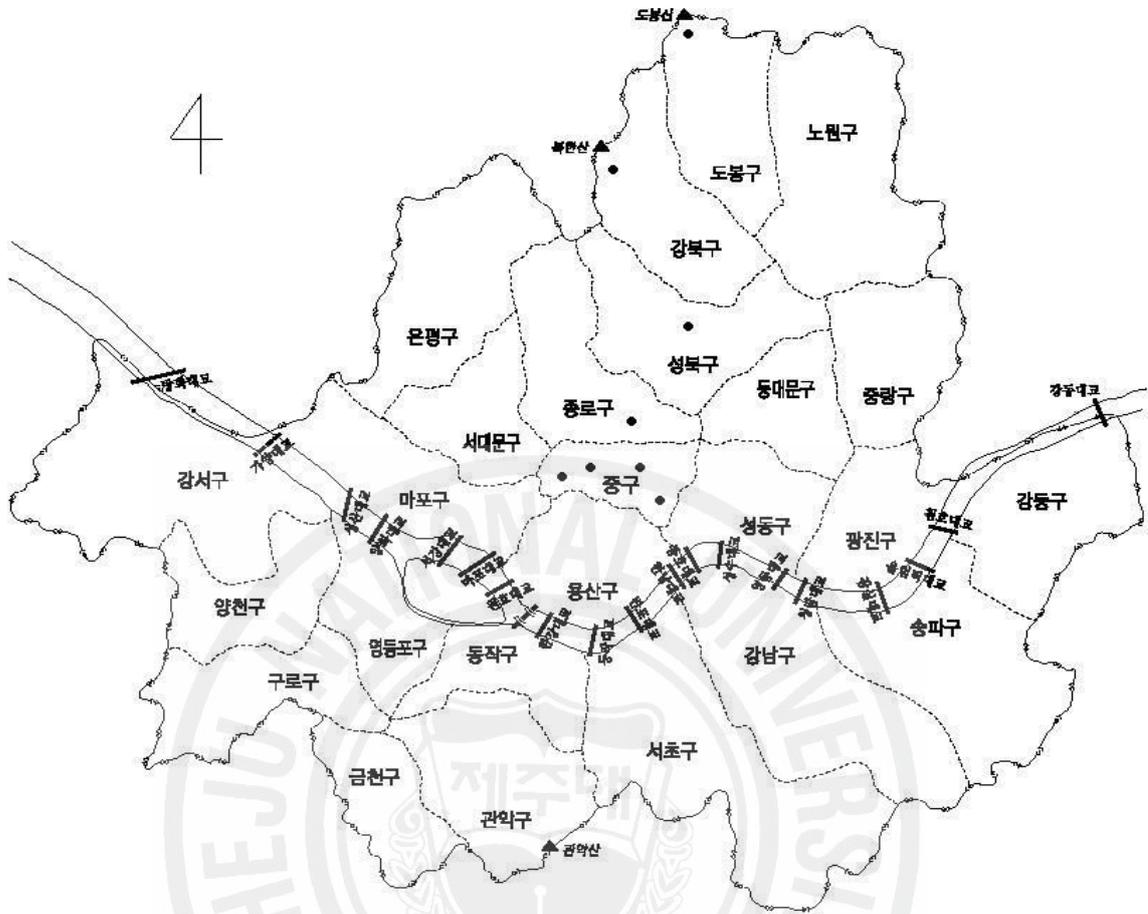
모란봉과 대동강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북한의 지명인데,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수도인 평양은 북한을 대표하고 있고, 모란봉과 대동강은 평양을 대표하는 자연지리경관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실향민들은 지리적으로 각기 다른 고향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모두 북한이라는 공간 안에 있으므로 이들을 이어주는 대중적으로 결집된 상징적인 단어가 필요하게 되어 모란봉, 대동강과 같은 자연지리 소재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평양 중심의 대중가요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된다.

외국을 대상으로 한 대중가요가 18곡이 된다는 것은 당시에 외국문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곡이 10곡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상태에서 3곡이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인도를 대상으로 1곡, 페르시아(현재의 이란)를 대상으로 1곡이 조사되었다. 《간도선》, 《송화강 설매》, 《목단강 편지》, 《만주의 달》과 같은 대중가요가 붙여진 것은 간도, 송화강, 목단강, 만주라는 지명에 대중들이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도는 청과의 영유권 분쟁이 있었던 지역으로 19세기 후반 조선의 기근이 심해지자 청나라의 변경정책이 봉금정책에서 방임정책으로 바뀌었고 중국의 지주들은 소작인으로 조선인을 고용하고, 토지, 종자, 주택을 제공하여 경지 개간을 유도하였으며, 조선인의 대량 이주를 묵시적으로 허용하여 이주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20년~1930년대에 일제 식민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이민이 급속히 늘어났다(이은숙, 1998). 만주는 무장 항일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독립군이 활약하던 지역이고, 송화강은 고대국가 부여의 주 무대로 만주의 주요 강이며, 목단강⁸⁾은 일제가 만주를 지배하면서 철도의 부설로 급격히 공업화된 도시이다. 이 시기에 대중은 만주, 간도와 같은 지명은 외국이라기보다는 한민족의 생활공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만주로 많은 사람들이 반강제적 혹은 독립운동을 위해 이주되었기에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컸음을 알 수 있으며《상해로 가자》, 《꽃피는 상해》, 《안개 낀 상해》와 같은 대중가요가 붙여진 것은 당시 상해는 동아시아의 경제의 중심지였고, 유럽열강 및 일본의 조차지와 해외공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기에 일제의 침탈 속에서도 정신적인 고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대중가요를 살펴보면, 남북분단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남한은 미군정을 거쳐 미국을 중심으로 신탁통치가 실시되었다. 이때, 남한정부를 세울 때에도 미국의 정치, 교육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한국 전쟁에서는 남한에 파병된 유엔군 대다수가 미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남한 대부분의 공업시설, 발전시설, 가옥, 빌딩 등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다. 이후 남한의 경제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였으므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



<지도 3> 1960년 이전 대중가요에 나타난 서울특별시 지명분포
(미아리고개, 종로, 명동, 충무로, 소공동 등)

향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광복직후 발표된 《인도의 향불》은 인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음을 알려준다. 지리적 소재로서 갠지스 강과 벵갈이 다루어지고 있다. 갠지스 강에 의하여 퇴적된 충적토의 두께가 수백m에 이르는 광대한 충적평야는 인도 북부의 곡창지대를 이루는 동시에, 인도 역사의 중요한 무대이며 힌두 문화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현재에도 힌두교도 사이에서는 이 강물에 목욕재계하면 모든 죄를 면할 수 있으며, 죽은 뒤에 이 강물에 뱃가루를 흘려보내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벵갈지방은 민족의식이 높고 반영운동의 중심지였으며 그 중 벵갈루루⁹⁾는 1831~1881년에는 영국 통치부의 본부 역할을 했고 1881년 인도국왕이 복

위한 후 1947년 인도 공화국에 통합될 때까지 영국의 통치부와 군대가 주둔하였다. 이 시대의 인도에 대한 인식은 인도의 젓줄이라 불리며 힌두 문명의 성지인 갠지스 강과 반영운동의 중심지인 벵갈 지방에 국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도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1947년까지 식민통치의 아픔을 겪고 있었고 독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은 이유로 들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명동·충무로·남대문로 일대는 일본인 상가지구, 종로는 한국인 상가지구로 발전했다. 전차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주거지구는 전차노선을 따라 뻗어나갔다. 1949년 서울 외곽지대의 시가지와 주택지구는 청량리, 마포, 영천, 돈암동, 영등포 등 전차 종점과 그 연변에 한정되어 있었다. 한국전쟁 후에는 피난민의 대거 유입으로 또 다시 인구가 급증하였고, 시내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등장하여 주택지구가 전차노선을 벗어나 확장되었다 (권혁재, 1996).

<지도 3>을 보면 서울은 경복궁과 사대문을 중심으로 한 공간적 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 틀이 조금씩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까지는 종로, 명동, 충무로 등 전통적인 서울지명이 대중가요에 사용되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많은 예술가, 정치가, 저명인사들이 미아리 고개를 통해 남북되면서 대중가요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서울은 지리적·공간적 확장을 이루었지만 대중가요에 나타나는 지명을 살펴보면 서울의 확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 사회적 발전이 이루어져도 대중이 이를 받아들이고 공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일 것이다.

2. 유형별 분석

1) 인문지리적 요소

(1) 행정명

	제목	노랫말
행정명	럭키 서울, 서울 야곡(충무로), 명동 부르스, 소공동 블루스, 범벅 서울, 인천블루스, 대전 부르스, 제주도 타령, 서귀포 사랑, 서귀포 칠십리, 남원의 봄사건, 남원의 애수, 목포는 항구다, 목포의 눈물, 눈물의 목포항, 목포의 추억, 샌프란시스코, 아리조나 카우보이, 북경아가씨, 상해로 가자, 목단강 편지, 북청 물장수, 울산아가씨	애수의 네온가(명동), 나룻배 처녀(서울), 물레방아 도는 내력(서울), 이별의 부산정거장(서울), 삼다도 소식(제주), 함경도 사나이(남포동), 항구의 사랑(남포동)

광역자치단체 행정명칭으로는 서울, 대전, 경상도, 함경도, 충청도, 전라도 등이, 기초 자치단체 행정명칭으로는 서귀포, 남원, 목포, 남포동이 대중가요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럭키 서울》, 《서울 야곡》 등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서울이라는 행정명이 대중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숙했음을 알려준다.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속한 도서로 분류되었다가 1946년 8월에 도로 승격되었으며, 서귀포는 1981년 7월 1일 시로 승격되었는데도 서귀포를 노래한 대중가요가 2곡이나 된다.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이며, 남한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이 있기에 대중적 관심이 쏠렸지만, 당시에는 비행기와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일반인들이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특히 서귀포는 육지와와의 관문인 제주시에서 가장 먼 곳(당시에는 5·16 도로가 없었음)에 위치하여 직접 가본 사람이 매우 드물어 신비로움에 싸인 아름다운 섬 혹은 이상향으로서의 가치를 부여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대중가요가 한라산과 서귀포를 노래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삼다도 소식》은 제주도가 1960년 이전부터 대중적으로 삼다도라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귀포를 대중가요의 제목으로 사용한 경우도 2건이나 되는데, 1956년을 기점으로 해서 서귀포가 면에서 읍으로 승격했으며, 1981년이 되어서야 서귀읍과 중문면이 통합하여 서귀포시가 되었다는 점에서 서귀포가 행정명으로 대중

들에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는 1896년 13도의 재편과정에서 나주에 있었던 지방 통치의 기능을 옮겨와 전라남도의 도청소재지가 되었으며 당시에 도청이 있었다. 현재는 서울·부산·대구·인천에 이어 국내 제5위를 차지하는 대도시이며, 호남지방 최대의 도시이다. 산지지역과 평야지대의 접촉지에 자리함으로써 군사·행정·교역상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1914년에 개통된 호남선이 광주시를 피하여 영산강 서안을 따라 부설되자 한국의 경제중심권과 떨어져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소비도시로 전락하였다.(권혁재, 1996; 오홍석, 1995;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이와 대비하여 철도가 부설된 목포와 대전의 경우에는 <<대전 부르스>>(목포행 열차)와 같은 대중가요가 불리는 것을 보아 철도에 의해 대중들의 관심이 바뀌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당시의 한국의 대중들이 바라보는 전라남도의 랜드마크는 광주의 무등산이 아닌 목포의 유달산이라고 볼 수 있다. 목포는 일본 나가사키와 중국 상하이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19세기 말부터 열강제국의 주목을 받았던 항구도시로서 목포항 앞에는 삼호반도·화원반도·고하도 등이 내부 방파제 구실을 하고, 넓게는 진도·하의도·장산도 등이 외부 방파제 구실을 하여 천연의 양항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목포는 1897년에 부산, 인천, 원산에 이어 개항장이 되었고 외국인의 거류가 허용되었다. 일제의 식민지 경영을 위한 발판구실을 떠맡게 됨으로써 급속히 성장하였다. 서울~목포간 1번국도가 1911년에, 목포가 중착역인 호남선철도가 1914년에 개통되어 일제의 내륙진출을 위한 기지로서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권혁재, 1996; 목포시 홈페이지). 대중들은 한국에서 수탈된 물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창구, 일본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가거나 강제 징용되어 끌려가 고향을 등지는 장소로 목포를 인식했을 것이다. 유달산은 228m로 해발고도는 낮으나 산정은 매우 날카롭고 층층기암과 절벽이 많아 경치가 수려하며 산정에서는 목포시와 다도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동쪽 기슭을 중심으로 목포시가 자리 잡고 있어 목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과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유달산이 정신적 위안이 될 수 있는 지형지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포는 항구다>>, <<목포의 눈물>> 에서 유달산은 목포의 상징으로 대중에게 각인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 남향에는 남포동이 위치하는 데, 남포동은 조선말 조계조약에 의해서 일본인이 거주했고, 남빈동으로 불려오다가 1947년에 동 이름을 남포동으로 고쳤다. 이곳은 육지 쪽으로 도심의 서비스 기능을 발휘하는 한편, 해안으로 남향을 끼고 있어 도시 구조에서 해륙의 이중성을 드러낸다. 자갈치 시장으로 통용되는 수산물 도매시장과 어선의 집결지가 바로 이곳이다(오홍석, 1995). 대중가요에서 남포동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의해 피난민들이 부산의 남포동에 많이 모여들게 되면서 작은 단위의 행정구역이 대중들에게 인식되게 된 경우이다. 1947년에 개칭한 지역지명이 빠르게 정착된 것은 외지인들로 구성된 피난민들이 많았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울산아가씨》에서 나타나는 울산은 현재 중화학공업의 발달로 크게 부각되었지만 당시에 도 역사적, 국방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신라시대에는 경주의 동남쪽 관문 구실을 했고, 처용가를 노래한 처용의 전설이 깃들여 있는 곳이다. 고려 말에는 왜구의 침입이 극심해 읍성이 텅 비어 있기도 하였고 조선 초에는 3포의 하나로 염포가 개항되기도 하였다(권혁재, 1996). 당시 지방의 중심도시였던 울산이 대중에게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하이와 중국 동부 양쯔강 하구에 위치한 항구도시로서 당시에는 각국의 조차지와 공관이 밀집해 있었으며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진 최대의 경제도시였다. 목단강은 일제가 만주를 지배하면서 철도가 부설되어 급격히 발전한 도시로 고무·기계·석유·화학·전기기구·시멘트·방직·목재 등의 공업이 활발해졌다. 이 두 도시를 배경으로 대중가요가 유행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항구

	제목	노랫말
항구	울며 헤진 부산항, 이별의 인천항, 목포는 항구다, 눈물의 목포항, 비 오는 나진항, 돌아가라 하동포구, 제물포 시름, 애수의 제물포	굳세어라 금순아(홍남부두), 함경도 사나이(홍남부두)

인문지리 경관인 항구를 소재로 하여 대중가요가 만들어진 것은 그 시대 상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대중가요가 활성화되기 전의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외국에 나가거나 교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20~30년간의 외세의 침략기를 거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자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바다로 향한 관문인 항구도시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항구가 대중에게 아주 중요하게 각인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목포는 항구다》, 《울며 헤진 부산항》, 《이별의 인천항》, 《제물포 시름》, 《애수의 제물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목포항, 부산항, 인천항은 그 당시의 주요항구였으며 일제의 수탈 혹은 원하지 않지만 고향을 떠나고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사람들의 관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흥남부두의 경우에는 한국전쟁에서 육상으로의 후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흥남부두의 해상로를 통해 후퇴를 할 때, 배에 탄 사람과 타지 못한 사람이 발생해 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했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대중가요로 유행하게 되었다.

(3) 역, 정거장

	제목	노랫말
역, 정거장	비 내리는 호남선,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간도선, 만주선	대전 부르스(대전발 영시오십분 목포행 완행열차)

한국 철도의 시초는 1899년 9월 일제가 경인철도주식회사를 통하여 제물포~노량진 사이 33.2km 철도를 완성한 것이다. 이후 러일전쟁이 일어나 일본은 군사적 목적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철도가 필요하였으며, 그로 인해 1905년 경부선을 개통하고 다시 서울~신의주 사이, 마산~삼랑진 사이 철도 공사에 착수하여 이듬해 4월 경의선을 완공하였다. 이로써 한반도의 남단 부산으로부터 만주 안동현에 이르는 간선이 이루어졌다. 이후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은 통감부 안에 철도관리국을 설치하여 경인·경부·경의·마산선을 직접 장악하고, 1910년 국권피탈이 이루어지자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설치되어 식민지 경제적 착취를 위하여 철도망의 확장에 착수하였다. 1914년 호남선, 1928년 함경선을 완공하였고,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본은 대륙과의 연락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경지대 철도확장작업에 착수하여 1937년 해산선, 1939

년 평원선·만포선을 완공하였다. 1941년 경경선이 개통되고 1942년 중앙선이 개통되었다. 1914년 이래 총독부 보조를 받아 사설철도회사들이 착수한 지선들이 다수 완공되어 식민지 정책 수행상 필요한 노선의 철도는 거의 완공되었으므로 1945년 8·15광복 당시 철도의 총길이는 6,362 km이었다(철도청 홈페이지). 한국에 침략한 일제가 부설한 철도는 일본의 대한민국 식민지 수탈정책과 대륙 침략을 위한 교두보 등으로 이용하기 위함이었으므로 대한민국의 국토를 매우 편향적이고 불합리하게 재편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대에 유행하는 유행가를 보면 호남선, 부산정거장, 목포행 열차, 대전, 간도선이라는 소재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부산, 목포와 같은 지명의 경우에는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에는 바다가 가로 막고 있기에 식민지에서 수탈한 인적, 물적 자원을 이동하기 위해서 철도가 연결된 항구를 보여주고 있다. 호남선의 경우에는 호남평야와 논산평야와 같은 대한민국의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쌀을 일본으로 수탈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철도는 이별, 눈물, 유랑, 슬픔 따위의 대명사로서 모든 것을 실어 나르는 철도를 통해 우리는 주체적인 것과 토착적인 것을 떠나보냈고, 외래적인 것과 이질적인 것이 그 대신 흘러들어왔다(이동순, 2005).

대전은 일제가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력과 물자를 최대한 빨리 이동하기 위해 1905년에 경부선철도가 개통시키면서 만들어진 신생도시로서 한밭이라는 마을에서 도청이전까지 2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1914년에는 호남선철도가 완공되어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한 거점으로서의 조건이 보완되었다. 군대가 주둔하고 상업과 도정, 양조, 제사 등의 공업이 발달하여 1917년에 지정면이 되었으며, 1931년에는 읍으로 승격하고 1932년에 도청이 공주에서 옮겨오게 되자 충청남도의 정치·경제·문화의 요지가 되었다(권혁재, 1996) 대전의 발전은 정부축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도가 굳어지게 한 원인이 되어 지금까지도 국토의 균형발전에는 크게 저해되고 있다. 일정한 노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철도는 공간적으로 부흥하는 도시와 쇠락하는 도시를 확실하게 구분하게 만들어 대중들이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고정되고 편향된 인식을 심어주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간도선》은 1960년 이전에만 불렀던 대중가요로서 지리적, 시대적 특

정을 보여준다. 한민족의 생활공간이었던 간도가 일본과 청(중국)의 간도협약 이후, 「푸른 불 간도선 붉은 불 간도선/산머리 안타까운 밤불도 푸른 간도선/아아 아 방울소리 하늘을 넘어/꿈에나 본다 본다 고향을 고향을 본다」의 가사처럼 고향을 그리는 타향의 이미지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만주선》 또한 타향천리 별관에서 지나가는 기차를 붙잡고 고향에 돌아가는 꿈을 그리고 있다(이동순, 2005). 만주선, 간도선은 한민족의 생활공간이었지만 일제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국경선 확정 등으로 인해 타향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다리

	제목	노랫말
교량	선죽교	고향의 그림자(영도다리), 굳세어라 금순아(영도다리), 남원의 봄사건(오작교), 샌프란시스코(금문교), 함경도 사나이(영도다리)

영도다리는 부산 중구와 영도구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1931년에 착공, 1934년 3월에 준공되었다. 부산시청 남쪽에서 영도의 북서쪽을 잇는 이 다리는 개폐교(開閉橋)로 유명하여 선박이 통과할 때에는 다리의 중앙에서 양쪽으로 들어올려서 배를 통과시켰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영도다리가 대중가요에 많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한국전쟁으로 남한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밀려 낙동강 전선을 바탕으로 결사항전을 하게 된 상황에서 국토의 남단의 최대 항구인 부산으로 정부가 피난하는 등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게 되었다. 인구의 공간적 압축이 발생하게 되고 사람이 살지 않던 곳까지 판잣집이 들어서고 먹고 살기 위한 처절한 각축이 벌어지게 되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기를 기약했던 실제적인 경관이 바로 영도대교였다. 또한 실향의 아픔을 달래며 위안을 삼았던 곳이 영도대교라 할 수 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기를 고대했고 실향의 아픔을 달래던 영도대교는 실제적 인문경관에서 상징적 경관으로 변하게 되었고 대중가요의 소재로 사용되게 되었다.

금문교(金門橋)는 길이는 2,825m, 너비는 27m로서 남안의 샌프란시스코와 북안의 마린반도를 연결하는 최단거리에 놓인 현수교로, 1933년에 착공하여

1937년에 준공하였다. 차고 거센 조류와 안개가 많은 날씨 그리고 수면 아래 지형이 복잡하여 건설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4년 만에 완공하여, 미국 토목학회에서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꼽는다. 금문교는 미국의 경제적 풍요로움과 높은 토목기술력이 집합된 불가사의한 건축물로 당시 대중들에게 미국으로의 동경을 품어주게 하는 인문경관이라 할 수 있다.

전라북도 남원 광한루의 오작교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문경관이지만, 견우와 직녀이야기라는 설화와 춘향전이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선죽교》가 대중가요로 유행했다는 것은 대중들의 역사인식이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으며, 개성이라는 지명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 역사지명

	제목	노랫말
역사지명	삼각산 손님, 꿈꾸는 백마강, 백마강 달밤(낙화암), 백마강, 흐르는 백마강, 삼각산 손님, 경성은 좋은 곳, 제물포 시름, 서라벌 달밤에, 만월대, 통군정의 노래	대한팔경(석굴암), 신라의 달밤(불국사), 신라의 북소리, 무영탑 사랑, 함경도 사나이(홍남부두), 군세어라 금순아(홍남부두), 남강의 추억(촉석루)

《함경도 사나이》, 《군세어라 금순아》는 6·25의 아픔을 담고 있는 대중가요이다. 유엔군과 국군이 압록강 전선까지 올라가서 남·북한 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가 시작되고 퇴각로가 막힌 유엔군과 국군은 홍남에서 홍남 철수작전으로 수송선을 타고 퇴각한다. 이 과정에서 유엔군이 원자탄을 투하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많은 피난민들이 수송선에 타기 위해서 홍남 앞바다에 모이게 되고 수송선에 다 타지 못하여 가족끼리 친족끼리 생이별을 하는 이산가족이 생기게 되었다. 함흥이라는 지방 대도시에 가려 대중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는 조그만 어항에 불과한 홍남은 함흥 철수계획이 적에게 노출되어 어쩔 수 없이 사용된 항구이다.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의 아픔이 있었기에 함흥이라는 대도시보다 더 대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충청도와 경상도를 소재로 한 대중가요를 보면 대중의 역사적 인식이 충청남도는 백제, 경상북도는 신라라는 것이 뚜렷이 구분된다. 백제의 수도가 있었

던 충청남도의 공주, 부여가 금강(백마강)의 유역권 내에서 발전하였기에 《백마강》 《백마강 달밤》 《꿈꾸는 백마강》이라는 제목의 대중가요가 불려졌다. 백제라는 국호와 당시의 수도 이름이었던 웅진(공주), 사비(부여)를 사용하지 않고 비유적 표현인 백마강을 등장시키는 것은 백제가 멸망되어 역사의 뒀안길로 묻혀진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신라의 경우에는 신라라는 국호가 당당히 사용되고 있고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의 옛 이름인 서라벌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신라의 북소리》, 《신라의 달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중가요에 나타난 옛 지명을 살펴보는 것으로 승자의 역사와 패자의 역사를 바라보는 대중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백마강(금강)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에서 발원하여 충청남·북도를 거쳐 강경에서부터 충청남·전라북도의 도계를 이루면서 군산만으로 흘러드는 강이다. 꿈꾸는 백마강, 백마강 달밤 등은 잊혀진 백제시대의 역사를 내용으로 하는 대중가요로서 번성했던 백제가 망하고 세월이 흘러 인문경관이 아닌 낙화암과 같은 지형지물을 통해 기억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패배한 국가의 역사기록은 왜곡되고 조작되어 확실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역사는 지리적 공간 위에서 형성되었기에 강이나 바위와 같이 쉽게 변하지 않는 지형지물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망국의 한을 담은 진실된 역사가 전달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백제가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진지 1300여년이 지났지만, 대중가요에 나타난 민중의 인식은 사라지지 않고 면면히 흘러오고 있다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게 멸망한 백제의 상황이 일제에 강제 병합된 대한제국의 상황과 유사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무너진 백제를 다시 세우기 위한 백제부흥운동을 해왔다는 사실은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일제강점기의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백제의 상징인 백마강이 한 민족의 상징인 백마강으로 탈바꿈하여 독립의 염원을 담은 대중가요로 불려졌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북한산은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삼각산으로 더 잘 알려진 산으로 1960년 이전의 대중가요에서는 일제가 새로 만든 지명인 북한산보다 민족의 고유지명인 삼각산에 대한 인식이 뚜렷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제는 아무런 특징이 없고 모호한 이름인 북한산이라고 개칭했지만 실제로 삼각산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최고봉 백운대와 그 동쪽의 인수봉, 남쪽의 만경대(일명 국망봉)의 세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삼각산이라는 지명이 실제 보이는 3개의 봉우리라는 지형지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에 민중들이 이해하고 인식하기 쉬워서 새로운 지명이 강압적으로 사용된 후에도 옛 지명을 그대로 대중가요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진다.

의주는 예로부터 중국으로 건너가는 문호이며 중요한 관방이 있던 곳이다. 수비대가 있던 국경이기에 군사를 지휘하는 통군정은 《통군정의 노래》라는 대중가요에 나오는 상징적 누각이 되어왔다. 경의선 철도가 의주로부터 먼 곳에 부설되면서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청소재지가 1924년 신의주로 이전하는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명의 뜻과 같이 신의주는 신흥도시로 변형하는 계기를 마련한 데 반해, 의주는 과거의 추억 속에 살아가는 쇠락하는 도시로 변모하고 말았다(오홍석, 1995).

불국사, 석굴암 등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는 불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볼 수도 있지만, 역사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라고 달리 설명할 수도 있다. 이는 조선시대에 승유배불 정책을 통해 불교를 억제했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불교의 나라였고 역사적인 문화재 대부분이 불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오랜 세월 민중과 함께 해온 종교로서, 종교로서의 불교와 역사로서의 불교가 모두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불국사와 석굴암과 같이 대중가요에 사용된 불교의 지리적 소재가 경상북도 경주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패배한 역사로서 역사의 중심이 되지 못한 백제와 고구려의 불교는 인문적 경관이 사라지면서 대중들의 인식에서 사라졌음을 보여준다.

2) 자연지리적 요소

(1) 하천

	제목	노랫말
하천	대동강 달밤, 울어라 대동강, 대동강 물결위에, 애수의 압록강, 압록강 뱃노래, 꿈꾸는 백마강, 백마강 달밤, 흐르는 백마강, 백마강 달밤, 꿈에 본 대동강, 한강, 한 많은 대동강, 눈물 젖은 두만강, 추억의 두만강, 두만강 뱃사공, 영산강 뱃사공, 남강은 말없네, 라인강, 송화강 썰매	목포의 눈물(영산강), 목포는 항구다(영산강), 나룻배 처녀(낙동강), 님아 인생(임진강), 인도의 향불(갠지스강), 전우야 잘 있거라(낙동강, 한강), 처녀 뱃사공(낙동강), 물 새우는 강 언덕(한강), 조선타령(압록강, 두만강), 관서천리(대동강)

강을 소재로 하여 대중가요로 불려진 대표적인 노래는 《꿈꾸는 백마강》, 《애수의 압록강》, 《한 많은 대동강》, 《한강》, 《눈물 젖은 두만강》 등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대동강은 기름진 평야를 끼고 있어 당시 농업이 국가산업의 주축을 이루던 때에는 대중들에게 중요성이 매우 컸으며, 압록강, 두만강, 임진강은 국경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대중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한강의 경우에는 한국의 중부지방에 위치하여 강원도 삼척시에서 발원하여 충북, 경기, 서울, 인천을 거쳐 서해로 유입하는 강이다. 수도권은 한강유역에 속한 지역이 넓고, 임진강과 안성천 유역에 속한 부분은 좁다. 북한강과 남한강은 양평군의 양수리(兩水里)에서 만나 한강의 본류를 이룬다. 한강은 남한의 하천 중에서 유량이 가장 많다. 한강은 과거에는 수로로 중요했고, 오늘날에는 용수원으로 중요하다. 한강의 하류서안에는 경기도 과천시·고양시·김포시에 걸쳐 김포평야가 펼쳐져 있어 농업생산이 이루어진다(권혁재, 1996). 한강은 한국의 중부지방을 동에서 서로 흐르며 완만한 서쪽지역에 인구가 조밀하게 거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어 서울과 인천과 같은 대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기여하였다.

낙동강은 태백사에서 시작하여 안동까지 대략 남류하다가 안동에서는 서쪽으로 방향을 틀며, 점촌 부근에 이르러 다시 남류한다. 경북내의 주요 지류로는 상류에서부터 반변천, 내성천, 위천, 감천, 금호강 등이 있다. 낙동강은 내륙수로의 중요성이 매우 컸었다. 삼랑진과 왜관은 널리 알려진 하항이었고, 안동까지 배가 올라왔다. 지금은 여러 댐이 건설되어 다른 큰 하천과 마찬가지로 수자

원으로서의 중요성이 지대해졌다. 영남지방 전역을 유역권으로 하여 그 중앙 저지대를 남류하여 남해로 흘러드는 하천으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남 김해시, 경북 경산시, 구미시 등 영남지방의 주요 도시는 낙동강 주위에 있다. 한편 낙동강은 저산성 산지 또는 구릉지를 흐르기 때문에 범람원이 넓게 발달하지 못하고, 따라서 김해삼각주(김해평야)를 제외하고는 강 연안을 따라 소규모의 평야가 펼쳐져 있을 뿐, 넓은 충적지는 비교적 적게 발달하고 있다. 주요평야는 상류부의 안동분지, 중류부의 대구분지, 하류부의 경남평야로 나뉜다. 안동분지는 여러 지류 연안의 침식분지들이 연결된 규모가 큰 평지이고, 대구분지는 본류와 금호강·감천 외 여러 지류 연안에 수지상으로 분포하는 평야이며, 경남평야는 창녕·이남의 본류 연안과 남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평지 및 김해삼각주를 포함한다(권혁재, 425). 낙동강의 물줄기에 분지나 평야가 발달한 지역은 일찍부터 농업이 시작되었고 도시가 형성되어 인구가 조밀하게 되었다.

금강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에서 발원하여 영동 옥천지방을 거쳐 청원군에 이르러 충북과 충남의 도계를 이루면서 계속 북쪽으로 흐르다가 부강 부근에서 유로를 서쪽으로 틀면서 충남으로 빠져나간다. 금강은 행정구역을 나누는 경계가 되기도 하지만 철도와 도로의 개설 이전에는 금강이라는 내륙수로를 통해 충청남도과 전라북도의 생활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교통로의 역할도 하였다. 상류부에 대전분지·청주분지, 중류부에 호서평야, 하류부에 전북평야가 전개되어 전국 유수의 쌀생산지대를 이룬다(권혁재, 189). 또한 역사적으로는 해상교통의 발달과 농업 생산으로 금강연안에 공주·부여와 같은 백제의 수도가 있었다. 내륙수운을 바탕으로 강경과 같은 옛 상업도시가 발달하였지만 현재는 호남선의 개통과 자동차교통의 발달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영산강은 담양군 용면 용추봉(560 m)에서 발원하여 유역면적 3,371.3km²의 작은 강이다. 화강암지대를 관류하여 연안에는 나주평야를 위시하여 넓은 충적지와 구릉지가 곳곳에 펼쳐진다. 영산강유역은 주요 곡창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수해와 가뭄이 극심했다. 그래서 1970년대 중반에는 영산강지구 농업종합개발의 1단계 사업으로 4개의 대용량 관개용댐인 담양댐, 장성댐, 나주댐, 광주댐을 건설했고, 1981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영산강 하구둑을 완공했다. 그런데 이들 댐이 상류에서 물을 차단하여 영산강은 유량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조수가 드나

들던 영산강의 하구를 막아서 만든 영산호는 결국 수질오염이 극심하게 되었다 (권혁재, 349).

영산호 주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리적인 특성을 잘 활용했다. 육상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1960년대까지 이 지역은 목포-영산포-해창을 중심으로 여러 포구와 나루가 작은 선박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수운권(水運圈)이었다. 특히 내해 주변의 주민들은 농업과 어업을 겸하는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단일 교역, 방언, 통혼권을 형성했었다. 따라서 영산호 주변 지역의 나주·영암·무안·목포·함평 등은 비로 행정구역은 나뉘었지만 동일한 문화적 배경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영산내해는 지역통합 기능을 담당해왔던 것이다. 영산강 주변은 기름진 경지에서 얻어지는 높은 생산력과 편리한 교통이 토대가 되어 과거에 문화교류와 세곡수송의 거점이 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전략적인 면에서 크게 부각되어 왕조 교체기에는 세력의 쟁패지가 되었고, 근래에 이르러 일제의 침투·수탈의 창고로 이용되기도 하였다(김경수, 1998).

대동강은 전국에서 5번째, 북한에서는 압록강과 두만강 다음으로 긴 강으로, 길이가 439km이고 유역면적은 16,673km²이다. 동부산지 및 분지, 중부 대동강 유역평야와 서부 해안평야지대로, 동고서저의 지세를 나타낸다(한균형, 2000).

넓은 유역을 가진 주요 강이 대중가요로 사용된다는 것은 그 강을 터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나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으며 유역권 내에서는 수운권이 형성되어 동일한 문화적 배경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강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만강과 압록강은 다른 의미에서 대중에게 기억되었는데, 두만강은 한국, 중국, 러시아의 국경을 흐르는 강이고 압록강은 한국과 중국의 국경을 흐르는 강이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수탈과 인구의 증가, 독립운동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간도와 만주, 연해주로 이주할 경우에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이유로 고향을 등져야했고, 이주한 만주와 간도에서의 삶도 어렵고 힘들었기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떠날 때의 안타까움을 노래하게 되었다. 《눈물 젖은 두만강》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서대문형무소로 잡혀간 남편을 만나기 위해 젓먹이 아들과 두만강을 건넜으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 놓아 우는 것을 보

고 만든 노래이다. 두만강과 압록강의 의미는 국경선의 의미가 아니라 고향은 있으되 조국은 없는 한민족의 참상을 알려주는 지리적 장벽이라 할 수 있다.

임진강은 개성시 판문군과 경기도 파주군 사이에서 한강으로 흘러드는 강이다. 임진강은 한강의 지류로서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여건이 없었지만 조국의 분단으로 인해 대중가요로 불리게 된 강이다. 지난 수십 년간 임진강은 자연 지리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한국전쟁이후 휴전선에 의해 강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흐르고 있고 판문점과 철조망이라는 인문지리적 경관을 볼 수 있어 한민족의 분단을 보여주는 창이 되고 있다.

(2) 바다, 바닷가

	제목	노랫말
바다, 바닷가	해운대 엘레지	대한팔경(해운대), 바다의 교향시(명사십리), 서귀포 사랑(칠십리 해안선), 서귀포 칠십리, 샌프란시스코(태평양), 아메리카 차이나 타운(태평양)

바다에 관련한 대중가요는 국내의 경우에는 경치가 좋은 백사장을 중심으로 불러 졌음을 알 수 있다. 당시는 도로와 교통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으므로 아름다운 백사장으로 손꼽히는 해운대와 명사십리를 노래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 환경인 바다에 대한 동경을 품었을 것이다. 서귀포에 대한 대중가요가 많은 것은 바다를 건너서 가야하는 국토 남단의 제주도에 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서귀포는 신비로움 혹은 이상향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아름다운 바다와 해안을 연상할 때 떠오르는 지명이 부산의 해운대, 함경남도 원산시의 명사십리, 제주도의 서귀포의 칠십리 해안이라는 것은 알 수 있고 지리적 인지범위가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있어 넓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할 점은 태평양이 노랫말로 들어간 대중가요가 많이 있는데, 이 시기는 미국의 원조를 받는 등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서, 선진국이며 잘사는 나라인 미국을 적극적으로 동경하며 샌프란시스코 등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나타난다.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지리적 장벽으로서 태평양을 건너야 했기에 대중가요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3) 산

	제목	노랫말
산	삼각산 손님, 남산 나그네	대한팔경(한라산, 금강산), 목포는 항구다(유달산), 목포의 눈물(유달산), 꽃중의 꽃(백두산, 한라산), 꿈에 본 대동강(모란봉), 한많은 대동강(모란봉), 남아 인생(삼각산), 하이킹의 노래(도봉산, 북악산, 삼각산 손님(백화산))

산과 관련된 대중가요는 삼각산(북한산)이 제목으로 사용되었고, 한라산, 유달산, 백두산, 모란봉, 삼각산, 도봉산, 북악산 등이 노랫말 소재로 사용되었다. 삼각산, 도봉산, 북악산 등의 산이 수도였던 서울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서울을 중심으로 대중가요가 불러 졌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삼각산은 현재 북한산이라 불리며 서울 근교의 산 가운데 가장 높고, 산세가 웅장하여 예로부터 서울의 진산으로 불린다. 도봉산은 서울 북단에 위치한 북한산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이령(일명 바위고개)을 경계로 북한산과 나란히 솟아 있다. 도봉산과 북한산은 중생대 말기에 지층에 파고든 화강암이 지반의 상승과 침식작용으로 표면에 드러났다가 다시 풍화작용을 받아 험준한 바위산이 되었다. 각 봉우리는 기복과 굴곡이 다양하여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서울 외곽에 위치하여 등산객의 수가 많은 것도 대중가요의 소재로 사용된 이유가 된다. 북악산은 서울 경복궁 북쪽에 솟아 그 주산을 이루어온 산으로 현재는 남쪽 기슭에 청와대가 있다(권혁재, 1996). 북한산, 도봉산과 같이 경치가 수려하며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은 등산객이 많아 대중가요에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두산은 한국의 조종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단군설화에서 한국의 개국이 백두산에서 시작되는 것이나, 한국의 재래 공간인식체계의 하나인 풍수지리에서 한반도의 지맥(地脈)이 백두산에서 비롯한다고 보는 것이 그 예이다. 백두산은 신생대 제3기말에서 제4기에 걸쳐 중심 분출과 열하분출의 두 가지 용암분출의 두 가지 방식의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김주환, 2000). 제주도의 중앙에 솟아있는 남한 최고봉인 높이 1.950m인 한라산은 그 자체가 곧 제주도를 이룬다. 한라산 정상부는 조면암질 용암류가 분출되어서 급경사의 종상화산을 이룬다. 그러나 정상부를 제외한 산복부에서 해안

까지는 현무암질 용암류가 분출되어 덮였기 때문에 매우 완만한 경사의 순상화산을 이루며 해안지형도 단조로운 것이 특징이다(송성대, 2000). 백두산은 한민족의 시발점으로서 한라산은 남한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산으로서 대중들에게 쉽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란봉은 평양특별시 대동강 오른쪽 연안에 있는 산으로 예로부터 이름난 명승지로 본래 금수산이라고 하였는데 산의 생김새가 마치 모란꽃처럼 생겼다고 하여 모란봉이라 부르게 되었고 부근은 그대로 금수산이라 한다. 평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로 고구려의 수도였으며, 관서 지방의 경제, 문화, 교통 중심지로서 현재는 북한의 수도이다. 평양을 대표하는 산이 모란봉(금수산)으로 대중들이 모란봉과 평양에 대한 인식이 컸으며, 남과 북이 분단된 이후에는 실향민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모란봉을 통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백두산이 대한민국의 진산으로, 삼각산이 수도 서울의 진산으로, 북악산이 조선시대 궁궐인 경복궁의 주산이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진산과 주산의 개념을 가진 산이 대중가요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들 산의 영향력이 매우 컸음을 짐작하게 한다. 진산과 주산이 공간적으로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성은 서울과 경복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대중들에게 수도 서울과 경복궁이 매우 중요한 존재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4) 고개

	제목	노랫말
고개	비 내리는 고모령, 울고 넘는 박달재, 단장의 미아리 고개	전우야 잘 있거라(추풍령)

고개는 고모령, 박달재, 미아리고개, 추풍령 등이 대중가요의 소재로 이용되었다. 미아리 고개는 돈암동 고개라고도 불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에서 길음동으로 넘어가는 미아로에 있다. 조선시대에는 되놈이 이 고개를 넘어 서울에 침입하였으므로 되너미 고개라고 불렸으며, 한자명으로는 적유령이라 하였다. 또 한국전쟁 때에는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저명인사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이 고개를 넘어 북한으로 납치되어 갔으며 이 고개에 얽힌 사연을 내용으로 한

《단장의 미아리고개》는 널리 알려진 대중가요이다.¹⁰⁾ 고모령은 경부선 동대구역에서 부산방향으로 5.5km 떨어진 고모역 근처의 고개이다.

박달재는 충청북도 제천에서 충주로 통하는 고개이다. 예로부터 제천에서 서울에 이르는 관행길이 나 있으나, 첩첩산중으로 크고 작은 연봉이 4면에 에워싸고 있어 험준한 계곡을 이룬다. 이곳은 1217년(고려 고종 4) 7월 거란군이 10만 대군으로 침공해 왔을 때 김취려 장군이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전공을 세운 전승지로 알려져 있다(권혁재, 1996)

추풍령은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과 경북 김천시 봉산면의 경계에 있는 고개이며,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분기점으로, 금강과 낙동강의 분수령이며, 예로부터 영남지방과 중부지방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추풍령은 소백산맥의 많은 고개 중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으며, 임진왜란 후 조령을 넘던 간선도로가 옮겨옴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추풍령의 정상은 고도가 낮고 땅이 평평하여 이곳의 국도변에는 추풍령리와 관리와 같은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임진왜란 때에는 군사적 요충이 되어 의병장 장지현이 의병 2,000명을 이끌고 왜군 2만 명을 맞아 분전 끝에 물리쳤고(1차 전투), 다시 밀려온 4만 명의 왜군에게 패하여 장렬히 전사한 곳이며, 한국전쟁 당시에는 낙동강 방어선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권혁재, 1996)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고개라는 지형지물이 대중가요의 소재로 이용될 때에는 역사적 사건의 유무가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대중이 특정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리려는 마음이 있을 때, 대중가요의 소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5) 섬

	제목	노랫말
섬	제주도 타령, 연평도 바다로	목포는 항구다(삼학도), 목포의 눈물(삼학도), 삼다도 소식(제주).

섬은 삼다도(제주도)와 목포의 삼학도가 다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는 일제강점기까지는 전라남도의 부속도서였으나 1946년 8월 이후에 행정구역상 도로 승격되었다. 대중들이 생각하기에 일제강점기까지는 제주도는 육지에 멀리 떨어져 있기에 함부로 갈 수 없는 환상적인 섬으로 해방

이후에는 남한의 주요 행정구역 중에 하나라는 것에 흥미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삼학도는 목포에 부속도서로서 일본으로 떠나는 배에서 목포를 바라보면 삼학도가 보이기에, 일제강점기 고향을 떠나는 실항민들과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물의 이정표라 볼 수 있다. 연평도는 북서쪽으로 3·8선과 인접하고 있고 휴전협정이후 군사분계선과 매우 가까운 지역이다. 연평도는 판문점 등과 함께 실항민들과 이산가족의 한이 서린 공간적 장소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연안도서와 달리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있는 섬 면적 전체가 3824km²인데 반해 제주도의 면적은 1840km²로 절반에 가깝고 인구도 많아 섬으로서는 유일하게 행정구역상 도(道)가 되는 등 지역공동체의 크기가 커서 대중들이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의 경우에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화산섬이며, 남한에서 8번째로 큰 섬으로 조경 수역 근처에 위치하여 오징어 등 특산품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갔고 일본과의 독도문제 등으로 대중들에게 인식되었다. 제주도와 울릉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화산섬으로 육지 근처에 있는 수천 개의 연안도서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강화도는 4번째로 큰 섬으로 수도인 서울과 가까운 지점에 위치하였고,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 강화도를 점령하기 위한 외세의 침략과 고려시대의 몽고항쟁의 근거지였던 사실을 살펴보면 지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중들에게 쉽게 인식되었을 것이다.

(6) 기타

《오대강 타령》에서는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노들강, 낙동강을 소재로 노래하고 있다. 북쪽 압록강은 뗏목 실어 오는 물, 동쪽 두만강은 간도살이 가는 물, 서쪽 대동강은 여울 경치 좋은 물, 모란봉 갈매기, 중앙 노들강은 한양성 오백년, 역사 자취 깊은 물, 남쪽 낙동강은 곡식 실러 가는 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시기에 대중이 인지하는 5대강은 북한에 위치한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남한에 위치한 한강(노들강), 낙동강이지만 현재 남한의 대중이 생각하는 주요 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이고 섬진강을 넣는 경우도 있다. 현재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에서 통일을 대비한 정상적인 국토관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IV. 1961년~1980년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지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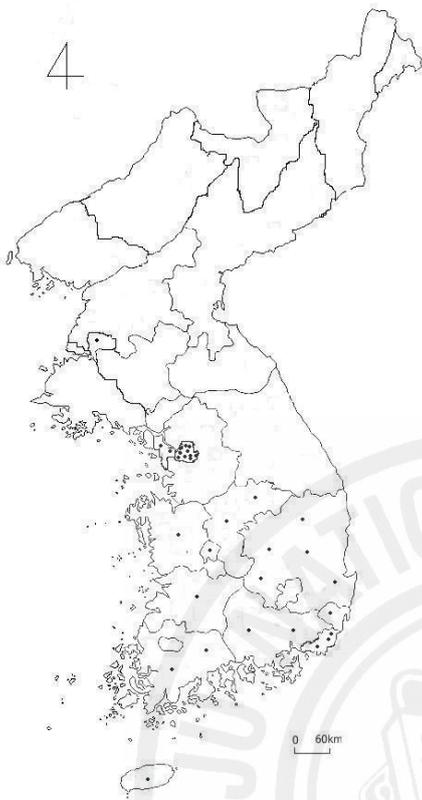
1. 지역적 분포

국가	행정구분	행정구역	제목에 나타난 지명	노랫말에 나타난 지명	
남한	특별시	서울	돌아가는 삼각지(삼각지), 비 내리는 명동거리, 서울의 찬가, 서울이여 안녕, 안개 낀 장충단 공원, 영등포의 밤, 마포 종점(당인리 발전소 ¹¹), 영등포, 여의도, 서울 구경, 제3한강교, 서울의 봄	아빠의 청춘(서울), 울산 큰 애기(서울), 육군 김일병(서울), 충청도 아줌마(서울), 흑산도 아가씨(서울) 바다가 육지라면(서울), 잘 있거라 공항이여(김포공항)	
			광역시	부산	잘 있거라 부산항, 돌아와요 부산항에(동백섬, 오륙도 ¹²), 용두산 엘레지.
	대구				
	인천	강화 도련님(강화도), 눈물의 연평도			
	광주				
	대전			송학사 ¹³)	
	울산	울산 큰 애기			
	9도	경기도			
		강원도(남쪽)			
		제주도	서귀포를 아시나요		
		충청도	공통	충청도 아줌마, 내 고향 충청도	이정표 없는 거리(충청도)
			충청북도	박달재 사연(제천), 추풍령	
			충청남도	서산 갯마을	
		경상도	공통		이정표 없는 거리(경상도), 화개장터(경상도)
			경상북도	경상도 청년, 울릉도 트위스트, 토함산, 영일만 친구, 울산 큰 애기(경상도)	
			경상남도	경상도 청년, 삼천포	황포돛대(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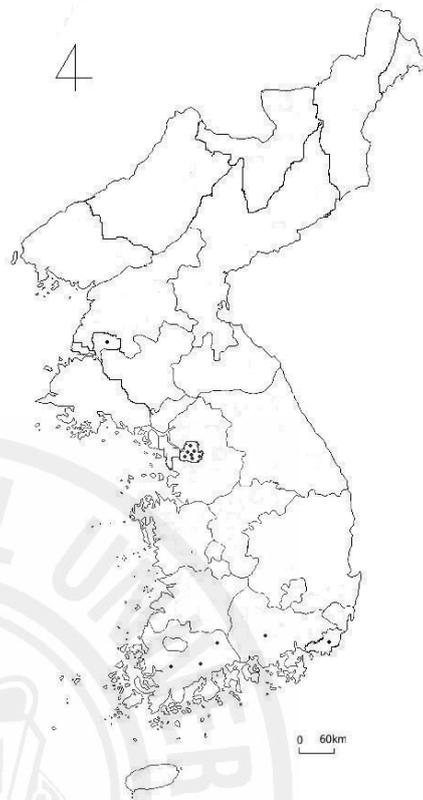
		전라도	공통	아가씨	화개장터(하동)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산강 처녀(유달산), 흑산도 아가씨		이정표 없는 거리, 낭주골 처녀(월출산), 화개장터(구례)
		53	35	18	
북한	직할시	평양	평양기생	대동강 편지(을밀대, 부벽루)	
		나선			
	9도	특급시	남포		
		자강도			
		양강도			
		강원도(북쪽)			
		평안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함경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2	1	1	
외국		월남의 달밤(사이공 항구), 사이공의 밤, (베트남), 하와이 연정(와이키키 해변),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강이름	제목	노랫말
행정구역별로 지역구분이 어려운 강	한강	아리수(한강,나훈아)	녹슬은 기찻길(한강)
	대동강	대동강 편지	녹슬은 기찻길(대동강)
	섬진강		화개장터(섬진강)
	소양강	소양강 처녀	

<지도 4>, <지도5>를 통해 보면 공간적으로 지역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의 분포가 서울만 조밀하고 지방은 산만하게 나타난다, 특히 북한지역은 평양과 그 주변을 제외하고는 대중가요의 소재로 사용된 경우가 없어 지리적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 이는 반공이데올로기로 무장한 박정희 정권이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여 철저하게 북한에 관한 대중문화를 억압하였고, 급속한 산업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공간구조가 개편된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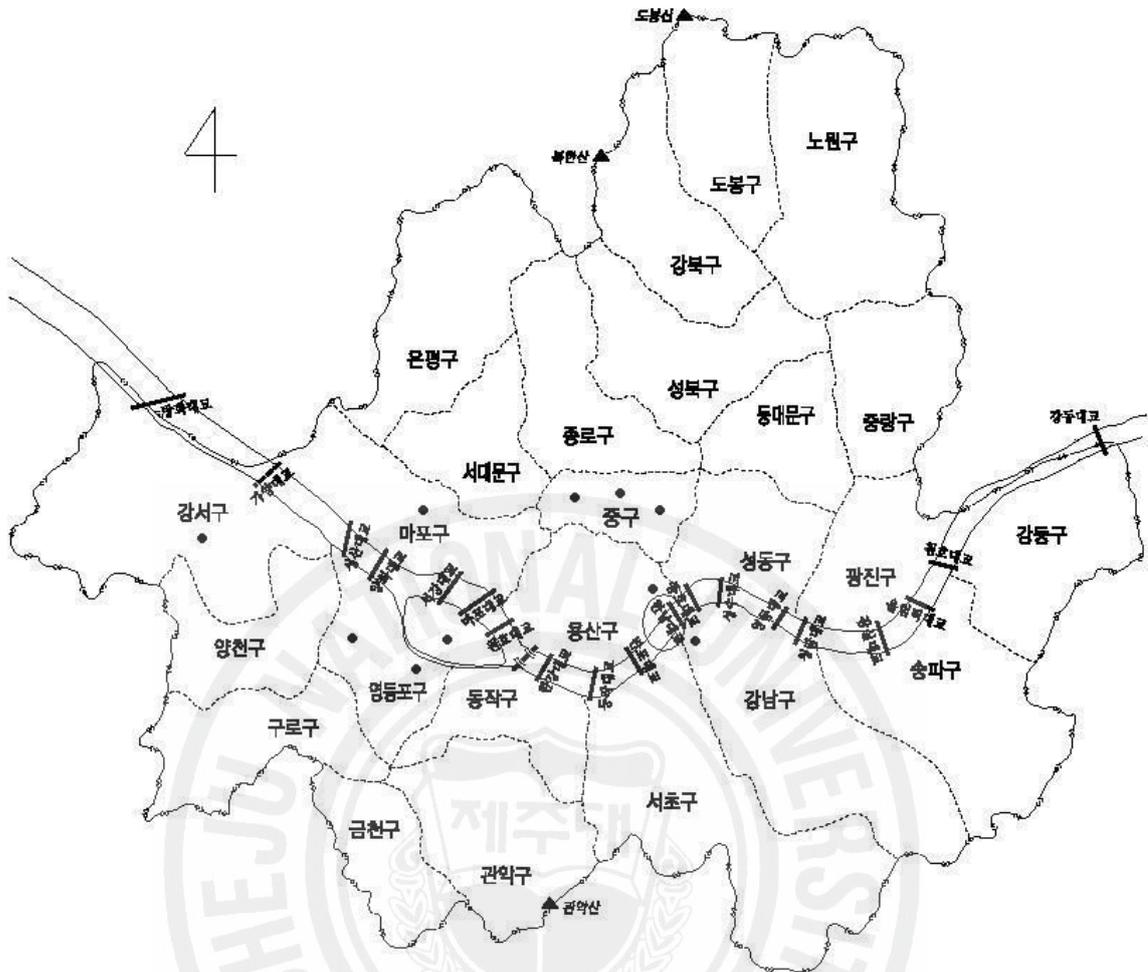
<지도 4> 1961~1980년 대중가요
제목에 나타난 전국 지명분포



<지도 5> 1961~1980년 대중가요
노랫말에 나타난 전국 지명분포

1948년 이전에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기 이전에는 한 국토였고 1948년 이후에는 남한과 북한이 각각 독립정부를 구성하였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남한은 반공정책을 시행했으나 많은 실향민과 이산가족이 발생하여 고향을 그리는 맘을 쏟아내었기에 북한의 지명을 이용한 대중가요가 나타날 수 있었다. 박정희 군사정부가 반공을 기치로 독재를 하던 1960년, 1970년대에는 사전, 사후심의를 통해서 대중가요를 금지시키는 등 북한에 대한 모든 것이 더욱 철저하게 금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을 소재로 하여 제목이 붙여진 대중가요 중에는 노랫말에 서울이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충청도 아줌마》, 《흑산도 아가씨》와 같이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이주하는 대중가요가 불리게 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개



<지도 6> 1961~1980년 대중가요에 나타난 서울특별시 지명분포
(명동, 장충단, 영등포, 마포, 여의도, 제3한강교, 김포공항 등)

편되면서 대규모의 이촌향도가 이루어졌고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남한의 공간구조가 더욱 고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3년에는 한강 이북의 도봉구, 노원구와 한강 이남의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강서구가 편입되어 시의 영역이 대폭 넓혀졌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인구 증가억제정책이 시행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이 설치되고, 여러 교량의 건설과 함께 강동구에서 서초구에 걸친 한강 이남의 넓은 지역과 여의도가 대대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남대문로를 중심으로 한 중심업무지구는 도시재개발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4대문 안의 종로구와 중구에는 상주인구의 감소로 인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권혁재, 1996).

<지도 6>을 보면 중구에 조밀하게 분포하며 마포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이 대중가요에 등장하고 있다. 서울에 편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도봉구, 서초구 강서구 등은 대중들의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한강 이남의 개발과 교량 건설은 영등포구와 강남구가 대중가요에 등장하게 되어 대중들의 관심이 쏠렸음을 알려준다. 사대문안의 중심업무지구의 재개발과 인구공동화 현상 등은 중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계속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베트남전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한 1964년부터 휴전협정이 조인된 1973년까지 8년간에 걸쳐 자유 베트남을 돕기 위하여 국군을 파견하였다. 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베트남이 대중가요의 소재로 이용되어 《월남의 달밤》과 같은 가요가 대중들에게 널리 불리게 된 이유가 되었다. 하와이와 같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이며, 미국의 한 주에 대해서도 대중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시기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비교적 가까운 나라인 중국이나 소련에 대한 대중가요가 없다는 것은, 그 시대의 시대상과 사회상에 따라서 지리적, 공간적 격차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유형별 분석

1) 인문지리적 요소

(1) 행정명

	제목	노랫말
행정명	서울의 찬가, 서울이여 안녕, 서울 구경, 서울의 봄, 강화 도련님, 울산 큰 애기, 서귀포를 아시나요, 평양기생, 사이공의 밤, 비 내리는 명동, 영등포의 밤	아빠의 청춘(서울), 울산 큰 애기(서울), 육군 김일병(서울), 충청도 아줌마(서울, 부산), 바다가 육지라면(서울), 화개장터(구례, 하동)

서울, 부산, 울산 등의 행정명칭이 사용되었다. 서울의 경우에는 세월이 지나면서 대중들에게 더욱 확고하게 지리적, 공간적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다른 행정구역은 지역명이 대중가요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서울에 종속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서울이라는 지역적 상징만이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아닌 명동, 영등포 등 서울 안에 있는 내부지명이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명동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속한 동으로 충무로·을지로·남대문로 사이에 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변화가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주택가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지금의 충무로인 본정(本町)보다 낙후된 지역으로 일제강점기 충무로가 상업지역으로 발전하면서 인접지역인 이곳도 그 영향을 받아 메이지췌(明治町)라는 이름의 상가로 변하게 되었다. 지리적으로 명동의 이미지는 1970년 이후 현재까지는 변화한 상가가 밀집한 상권의 중심지이다. 당시에는 화교들이 상권의 중심인 명동 인근에 터전을 마련하고 살았지만, 박정희 군사정권의 화폐개혁과 외국인 국내부동산, 주식 소유 금지법 등으로 경제권을 잃게 되어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지 못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대도시 중심가에는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막강한 화교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것과 대비된다. 명동이라는 지역명은 서울의 화려함을 대변하는 상권의 중심이자 경제적 중심지였기에 지명도가 매우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울산은 1931년에 읍이 된 지방중심도시였으나 우리나라 제일의 신흥공업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특정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는 한편 주변 지역을 편입, 시로 승격하면서부터였다. 1964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유공장인 울산정유공장이 준공되었고, 1970년대 초까지는 석유화학공업단지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어서 울산만 양안에 자동차, 조선, 비료, 화학섬유, 식품 등의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서고, 동해안쪽에도 거대한 조선소가 세워져서 울산은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중추적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도로, 철도의 교통망과 울산항의 항만시설이 크게 확충되는 동시에 공항이 신설되고 울산화력발전소가 건설되었다(권혁재, 1996). 중화학공업단지로서의 울산이 대중들에게 크게 각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행정명칭은 평양만이 언급되고 있어 남북한이 분단되었음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남북한이 분단되면서 많은 실향민과 이산가족이 생겨났지만, 지리적 공간인 북한과 정치체제인 공산당을 동일시하는 반공정권 속에서는 대중적인 요구를 대중가요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실향민들은 각자마다 다른 고향을 품고 있지만 북한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고 남북이 분

단된 후에는 북한의 수도가 된 평양이 정서적으로 공간적 중심지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인 섬진강을 기준으로 전라남도의 구례군¹⁴⁾과 경상남도의 하동군¹⁵⁾이 위치하고 있고 두 지역 간에 해묵은 지역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진강¹⁶⁾ 유역권 안에 있기에 장터를 열어 서로 필요한 물품을 사고판다는 내용의 《화개장터》는 지역의 특수성이 대중들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도의 경계를 나누는 장벽으로서의 강으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유역권 내의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문화, 경제, 사회 전반의 생활권이 공유된다는 것을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지리적 소재가 되고 있다.

(2) 항구

	제목	노랫말
항구	잘 있거라 부산항, 돌아와요 부산항에, 삼천포 아가씨	월남의 달밤(사이공 항구)

부산항은 남한의 대표적인 항구로서 역사적으로도 일본과의 교역 등을 통해 발달한 항구였다. 1970년대에 경제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부산항은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동임해공업지역의 관문역할을 하였다. 수출과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실시한 경부축 중심의 성장개발정책은 부산항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은 부산항이 수출화물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부산항의 기능이 점차 마비되었으며 현재에도 경부축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체제로 인해 대체항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한 최대의 항구인 부산항은 그 시대의 대중들에게 경제발전의 인문적 지표로서 보여 졌을 것이다. 부산항을 통해 일본이나 중동으로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많았기에 부산항이 쉽게 대중가요의 소재가 되었을 것이다.

남한은 주한미군 철수의 위협, 경제적 이익, 공산주의와의 이념 갈등, 국제 정세 등의 이유로 베트남전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한 1964년부터 휴전협정이 조인된 1973년까지 8년간에 걸쳐 자유 베트남을 돕기 위하여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인을 파병하였다.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 항구는 주요 이동로였으며 격전지였기에 대중적 인식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항구 도시인 사이공은 남

베트남의 수도였다. 그러나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이후 공산정권인 북베트남에 점령당했다. 1975년에 사이공시는 베트남의 혁명가이자 정치가인 구(舊)베트남민주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인 호치민을 기념하기 위해 호치민 시로 이름이 바뀌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국교가 단절되면서 대중들이 바뀐 지명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삼천포는 지역지명으로서의 대중정보보다는 '이야기가 다른 주제로 흘러가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엉뚱하게 그르치게 되다'라는 관용적 표현인 '삼천포로 빠지다'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졌다. 삼천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지리적 인식 없이 '삼천포로 빠지다'는 표현을 막연히 쓰는 경우가 허다하며 지역지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삼천포는 남해 연안에 있으며 무역항인 삼천포항이 있으며 현재 삼천포(三千浦)는 사천시 남부에 있는 지방을 일컫는 말이다. '삼천포로 빠진다'라는 표현에는 세 가지 유래가 전해진다. 첫째, 옛날에 어떤 장사꾼이 장사가 잘 되는 진주로 가려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장사가 안 되는 삼천포로 가는 바람에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라는 설이다. 둘째, 진해에 해군기지가 생긴 이래 해군들에 의해 나온 말로, 진해에서 서울로 휴가를 나왔다가 귀대하는 도중에 삼랑진에서 진해 가는 기차를 갈아타지 않고 잘못하여 삼천포 가는 것을 갈아타는 바람에 귀대 시간을 어겨 혼이 나는 병사들 때문에 생겨난 말이라는 설이다. 셋째, 부산을 출발하여 진주로 가는 기차에는 삼천포로 가는 손님과 진주로 가는 손님이 함께 탄다. 기차가 계양역에 닿게 되면 진주행과 삼천포행의 객차로 분리하여 운행한다. 이때는 반드시 방송을 통해 진주행 손님과 삼천포행 손님은 각각 몇 호차로 옮겨 탈 것을 알려 준다. 그러나 진주를 가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잠들거나 하여 엉뚱하게 진주가 아닌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 생긴 말이라는 설이다. 위 세 가지 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지금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사천시 홈페이지).

삼천포는 지역적으로 소외되고 경제발전이 더딘 지역 혹은 철도는 있으나 간선이 아닌 지선으로 연결된 작은 도시로 가지 말아야 하는데, 실수로 가게 되는 불필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었고 이것이 고착화된 것이다. 사천시 주민들이 표현을 지역 차별로 여기며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삼천포는 지리적, 공간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지명이 대중들에게 깊게 인식 될 때, 공간적 문제가 사회적, 문화적 문제로 발전되고 있는 사례로 들 수 있다.

(3) 역, 정거장

	제목	노랫말
역, 정거장	마포 종점	

마포라는 지역명칭을 보면, 서울의 중서부 한강연안에 위치한 마포지역은 안산에서 갈라진 와우산 구릉산맥과 노고산 구릉산맥, 용산 구릉 산맥이 한강으로 뺏어 세 산맥연안에 호수처럼 발달한 서호, 마포, 용호가 있었다. 이 3호를 삼개(3개의 포구)라고 불렀고 삼개 중 지금의 마포를 마포강, 마포항 등으로 불러 마포라는 명칭이 여기서 유래되었다. 마포구는 이처럼 옛날부터 수상교통의 요충지로서, 또는 삼남지방에서 오는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는 지역으로서 일찍부터 발달된 어촌이 형성되었으며 전국의 화물이 집산하게 되고 저자(시장) 거리가 형성되는 등 선박과 공미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다. 마포구 일대는 조선 전기에는 한성부 관할구역으로서 성 밖 10리 내에 있기는 하였으나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설정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짐작되며, 조선후기 두모방, 한강방, 둔지방, 용산방, 서강방 등 5개의 방이 한성부 행정구역으로 새로 설정되면서 마포구 일부가 용산방과 서강방에 속하게 되었다(마포구청 홈페이지).

마포구는 지리학상 포구문화가 일찍부터 번성하였으며, 성밖 농촌취락으로 발전되었다. 구한말 개항장으로서 관문역할을 하여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되었다. 1866년 천주교도 박해사건으로 프랑스함대가 한강을 타고 올라와 병인양요의 도화선이 되기도 하는 등 풍운의 역사를 겪기도 하였다. 그 후 서울에 철도가 부설되면서 화물집산의 포구로서 마포의 기능이 점차 줄어들었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강화만이 막혀 한강으로 배들의 출입이 금해지자 마포의 포구문화는 사라지게 되었다. 한양의 사대문 밖에 있는 포구취락으로서의 마포는 일제의 철도 건설로 한때 위축되기는 했지만, 서울의 외연적 팽창과 더불어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지도 6>을 보면 현재의 서울특별시는 지리적, 공간적인 팽창이 더욱 이

루어져 마포구는 서울의 변두리에 속하지 않는다. 당시의 대중가요인 마포 종점을 살펴보면 대중들은 마포가 전철이 끝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 마포를 기준으로 도시의 경계를 구분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1949년에 전차의 종점이 되어 주변지역으로 시가지와 주택지가 확장되었고 마포가 1968년 철거가 되기 전까지 대중들의 관심이 컸을 것이다. 절대적인 공간은 변함이 없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상대적인 공간의 인식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4) 교량

	제목	노랫말
교량	제3한강교	

교량에 지역지명이 들어간 대중가요가 적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시대상은 서울의 강남개발이 한창인 시절로 한강에 교량을 건설하여 강북과 강남을 잇는 공사가 한창인 시점이었다. 하지만 교량이라는 특수한 인문지리경관은 큰 사건이 없이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대중전체가 인식하기 힘들었으며 교량이 완공되고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아 지역민과 호흡하기에도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경제위주 발전전략에 따라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지 않던 시기였기에 교량에 지역명이 붙여진 대중가요가 불리기 힘들었고 제3한강교라는 일률적이고 경제적인 지명을 사용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제1한강교는 한강대교이고, 제2한강교는 양화대교로서, 제3한강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신사동 사이를 잇는 한강에 건설된 교량이다.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의 진입 관문 역할을 하며 이곳에서 시작되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따라 양재나들목부터 경부고속도로가 시작된다. 1966년 1월 19일 착공하여 1969년 12월 25일에 준공되었으며 1985년 한남대교로 개칭되었다(서울특별시, 1988).

(5) 역사지명

	제목	노랫말
역사지명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돌아가는 삼각지(로터리)

장충단은 1900년 고종이 원수부(元帥府)에 명하여 을미사변(乙未事變) 때 순국한 훈련대 연대장 홍계훈(洪啓薰) 이하 여러 장병을 제사지내는 단(壇)을 설치하도록 하여 만들어졌다. 항일·배일(排日)의 인물들을 장충단에 제향하여 일제의 횡포가 극심함에 따라 대중의 장충단에 대한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더욱 커졌다. 한일합방을 전후하여 애창된 《한양가(漢陽歌)》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 그러한 일면을 말하여 준다. “남산 밑에 지은 장충단 저 집 나라 위해 몸바친 신령 되시네/ 태산 같은 의리에 목숨 보기를 터럭같이 하도다/ 장한 그분네,” 장충단이라는 인문경관은 일제시대에는 항일, 배일, 독립 운동의 상징적 경관으로, 그 이후에는 한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는 물질적 공간으로 투영된다. 이 시기의 장충단 공원은 경제개발에 찌든 도시민들의 활력소가 되었을 것이다.

삼각지는 용산, 이태원, 서울역 등 세 갈래로 도로가 나있어 땅 모양이 세모였다고 하여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삼각지를 지리적으로 보면 용산, 이태원, 서울역으로 가는 도로가 만나는 핵심지점으로 자동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았고 정체현상도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당시의 삼각지에는 교통이 복잡한 세거리 같은 곳에 교통정리를 위하여 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환상 교차로인 로터리가 설치되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였는데, 교통정체현상이나 로터리 등의 효율성 등을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통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점인 삼각지를 대중이 인식하고 있음은 현실과 지리는 무관하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6) 기타

김포공항은 1942년 준공되어 1957년까지는 군용비행장으로 사용되었으며, 1958년 1월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어 1959년 종합청사 1,539㎡를 신축하고 그 후 각종 시설의 확충과 기능의 확대를 통하여 한국 영공의 문호로 발전하였다. 1971년 1월 여의도 공항이 폐쇄되면서 김포국제공항에 합류되었다. 김포공항은 1957년까지 군용비행장으로 사용되어 대중들의 인식이 미치지 못하다가

1958년 이후에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어 민간에 개방되어 대중들이 인지하게 되었다. 1960년 이후 《잘 있거라 공항이여》와 같이 김포공항을 소재로 하여 대중가요가 불려진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김포공항 홈페이지).

2) 자연지리적 요소

(1) 강, 하천

	제목	노랫말
강, 하천	소양강 처녀, 영산강 처녀, 대동강 편지, 아리수(한강)	녹슬은 기찻길(한강, 대동강), 화개장터(섬진강)

소양강은 강원 중부지역을 남서류 하여 춘천시의 북쪽에서 북한강에 합류하는 강으로 물길은 굴곡이 심하여 육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류하는 곳에는 지름 약 10km의 넓은 침식분지가 발달되어, 강원도의 도청소재지인 춘천이 자리한다. 소양강 하류의 춘천 북동쪽에 건설된 소양강 다목적댐은 1967년 4월에 착공되고 1973년 10월에 준공되어 상류의 인제까지 배가 다닐 수 있어 관광산업에도 큰 몫을 하였고 소양강 수력발전소는 1970년 1월에 착공되어 1973년 10월 완공되어 세계적인 에너지파동으로 국내 전력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에 준공·가동됨으로써 전력난 극복에 크게 기여하였다(권혁재, 1996).

당시 소양강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댐 건설로 인한 관광지로서의 인식과, 경제 발전의 지표로서의 인식, 에너지 파동에 대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처로서의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합쳐져 대중들에게 소양강은 친숙한 자연 지리적 지명이 되었을 것이다.

대동강은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대표하는 강으로 남한에서는 갈 수 없으므로 지리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음에도 대중가요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박정희 독재정권의 반공 이데올로기 앞에서 북한을 언급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시대상 속에서 대중가요에 북한의 대동강이 언급되었다. 이것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실향민들과 이산가족의 그리움이 정치적, 법적인 통제보다 더 컸으며 대중들 전체가 분단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바다, 바닷가

	제목	노랫말
바다, 바닷가	영일만 친구	하와이 연정(와이키키 해변), 고래사냥(동해바다)

영일만은 경상북도 포항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흥해읍 용덕곶, 남쪽으로는 대보면의 장기곶 사이에 있는 만이다. 영일만은 북동쪽으로 열려 있으며, 입구의 너비는 12km, 만내의 너비는 약 10km, 입구의 수심이 16~19m 정도로 깊어 공업항 건설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포항시 홈페이지). 형산강은 형산협곡을 벗어나면서 영일평야를 형성해 놓았고 영일평야의 전면은 사빈으로 되어 있었다. 포항의 시가지는 송도 북쪽의 넓은 수로, 즉 형산강의 구하도에 해당되는 수로의 항만과 배후산지 사이의 좁은 해안에 국한되어 있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구시가지 남쪽에 연이어 신시가지가 건설되었는데, 포항제철 및 철강공업단지와는 형산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영일만은 수심이 깊은 넓은 만으로 공업항 건설에 유리하고 연안에 형산강 하류의 평야가 있어 공단건설에도 유리하다(권혁재, 1996). 시기적으로 영일만에 포항제철이 세워지는 등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시기로 영일만이라는 지명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하와이는 미국의 한 주로서 태평양의 하와이 섬과 그 제도를 말한다. 대중가요에 언급된 와이키키 해변은 미국 하와이주(州) 오아후 섬에 있는 해변 휴양지로서, 섬 남쪽 해안에 있으며, 호놀룰루시의 일부를 이룬다. 북쪽에 산지를 끼고 남쪽에 바다를 바라보는 해안에 위치하는데다가 혜택 받은 사바나 기후와 바닷물이 맑고 깨끗하여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있다. 해수욕 · 일광욕 · 수상스키 · 서핑 등을 즐기기 위해서 미국 본토와 여러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일년 내내 끊이지 않고 모여든다.

하지만 남한의 당시 정치, 경제상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박정희 독재체제로서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는 있더라도 분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를 관광도시로 성장시켜 신혼여행 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켰고, 경상남도 창원군 부곡면 거문리에 부곡 하와이라는 종합

레저타운을 1979년에 개관하여 가족단위의 여행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켰다(권혁재, 1996; 경남 창녕군 홈페이지). 북쪽에 산지를 끼고 남쪽에 바다를 바라보는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과 제주도 남쪽의 중문 해안은 지리적, 공간적으로 닮았음을 알 수 있다.

(3) 산

	제목	노랫말
산	용두산 엘레지	낭주골 처녀(월출산, 천왕봉), 영산강 처녀(유달산)

특이하게도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산이나 백두산, 한라산과 같이 민족의 영산이 나타나지 않고, 부산광역시의 용두산, 전라남도 영암의 월출산과 같이 대중에게 생소한 산이 대중가요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백두산, 한라산과 같이 민족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산으로 지역공동체와 오랜 기간 함께 하였으며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전라남도 영암군을 암석경관이 수려한 월출산이 병풍을 두른 것처럼 솟아 있으며, 소백산계(小白山系)의 무등산 줄기에 속한다. 영암은 광주와의 거리가 1시간 정도이고, 광주에서 장흥·강진·해남 방면으로 나아가는 길목이기도 하다(권혁재, 1996). 월출산은 영암, 장흥, 해남, 강진, 완도 등 전라남도 남해안 지역공동체에게 중요한 산으로 전국 대중가요로 불릴 만큼의 지명도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고개

	제목	노랫말
고개	추풍령, 박달재 사연	

추풍령은 높이 221 m의 고개로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분기점으로, 금강과 낙동강의 분수령이며, 예로부터 영남지방과 중부지방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지금도 경부선 철도의 추풍령역이 있고, 4번 국도가 통하며, 경부고속도로의 중간점으로 추풍령휴게소가 있다. 추풍령은 예로부터 중요한 교통로로서 대중

들에게 인식되었으며, 1971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대중의 인식이 부산에 가기 위해 넘어야 하는 고개에서 서울에서 부산에 가기 위한 최단거리, 최단시간의 교통의 요지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박달재는 제천에서 서울에 이르는 관행길이 나 있으나, 첩첩산중으로 크고 작은 연봉이 4면을 에워싸고 있어 험준한 계곡을 이룬다. 박달재는 대중가요 시작부터 1960년까지의 대중가요에도 제목으로 사용되어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널리 알려진 지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추풍령은 교통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중가요의 제목으로 사용될 정도의 대중적 인지도가 없었으나, 경부고속도로의 개통 등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커져 대중가요로 사용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5) 섬

	제목	노랫말
섬	울릉도 트위스트, 흑산도 아가씨, 강화도런님, 눈물의 연평도	돌아와요 부산항에(오륙도, 동백섬), 마포종점(여의도)

울릉도는 북위 37°27' ~ 37°35'에 걸쳐 있어서 위도상의 위치가 강원도 동해시와 같지만 1월 평균기온이 0.7℃로서 상당히 높고, 8월 평균기온은 23.7℃로서 서늘한 편이다. 연강수량은 1367mm이며, 강수량의 분포가 연중 고르며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울릉도는 약 160ha의 나리분지가 유일하게 넓은 평지이고 대부분이 산지이다. 경지율이 16%에 이르지만 논은 아주 적고 거의 전부가 밭이다(권혁재, 1996). 울릉도 트위스트라는 대중가요가 불린 것은 이 시기에 대중들의 지리적 인식범위가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위치한 울릉도까지 미쳤다는 것이며,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명분 하에 독도에 관한 대중가요와 대중매체를 사전검열이라는 제도로 통제하던 시기였기에 대중의 지리적 인식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흑산도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딸린 섬으로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97.2km 떨어져 있다. 흑산도 아가씨라는 대중가요는 흑산도라는 목포 근처의 작은 섬인 흑산도로의 지리적 인식범위의 확대라는 것에도 의의가 있지만, 노랫말

을 보면 서울과 육지를 그리워하며 가고 싶어 하는 맘을 담고 있어 1960년 이후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서울과 대도시로의 이촌향도 현상이라는 일반적인 사건을 지리적으로 특수한 지역인 흑산도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강화도는 면적이 302.14km²로서 대한민국에서는 4번째로 큰 섬이다. 삼국 시대부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고려시대에는 몽골항쟁의 근거지였으며, 조선시대에 병인양요·신미양요의 격전지이기도 하다. 수도 서울의 전략적 요충지인 강화도는 대중들의 관심이 쏠린 섬으로 대중가요의 소재로서 부족함이 없다.

인천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 중에 인천의 최북단에 있는 연평도를 소재로 한 대중가요를 보면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실향민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맘을 볼 수 있다. 이는 연평도가 가지는 지리적 특수성에 기인하는데 연평도의 북서쪽으로 38°선과 인접하여 남한과 북한의 군사적 경계면으로 1999년 6월 북한 어선이 계속 이곳 앞바다를 침범함으로써 한국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의 해군 합정이 최초의 교전을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실향민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두고 온 일가친척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연평도라는 지리적 공간을 통해 투영되고 있다.

한강의 하중도인 여의도는 쓸모없는 모래벌판에서 간이비행기지로 알려지다가 1968년 여의도를 둘러싼 제방의 설치와 1970년 마포대교의 개통으로 신시가지가 만들어지면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국회의사당에 이어 63빌딩과 그 밖의 고층빌딩이 들어서서 업무기능이 탁월한 지역으로 발전했다(권혁재, 1996). 이 시기의 여의도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텅 빈 모래섬에서 고층빌딩과 아파트가 가득 찬 중심지로 바뀌었다. 대중들에게 경제와 산업 발전의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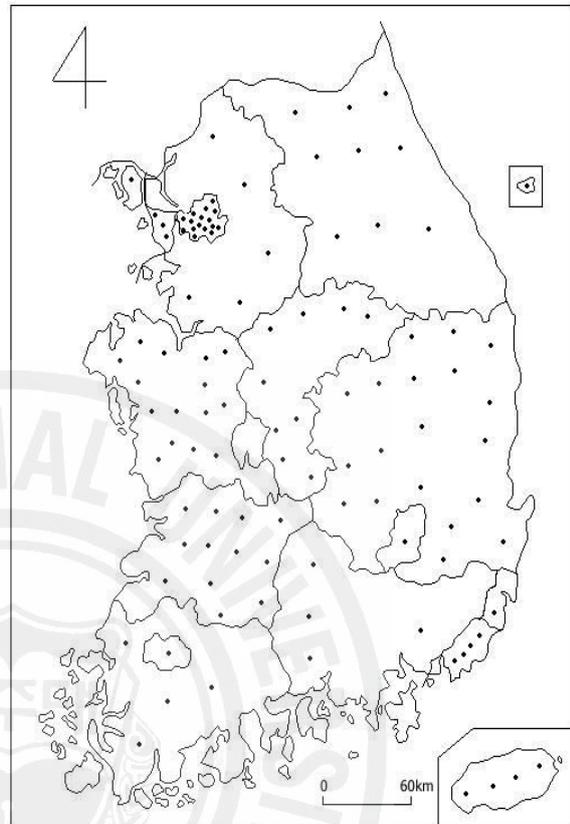
3. 팔도유람 지명분석

행정구분	행정구역	인문지리와 관련된 지명	자연지리와 관련된 지명	합계	
특별시	서울	의정부, 광릉, 동구릉, 금고릉, 서오릉, 백운대, 창덕궁, 경복궁, 창경원 9	불암산, 동두천, 소요산, 삼각산, 북한산, 도봉산, 남산 7	16	
6대 광역시	부산	부산, 자갈치시장, 송도, 동래온천 4		4	
	대구	대구 1		1	
	인천	인천 1	송도, 작약도, 강화도 3	4	
	광주	광주 1		1	
	대전			0	
	울산	울산 1		1	
9도	경기도	평택, 오산, 수원, 청평유원지, 팔당저수지 5		5	
	강원도(남쪽)	강원도 양양 낙산사 강릉 삼척 5	설악산, 대관령, 경포대, 태백산 4	9	
	제주도	제주도 1	한라산 백록담 서귀포 칠십리 3	4	
	충청도	공통	충청도 1		1
		충청북도	제천, 충주, 청주, 단양팔경, 보은, 옥천 7	속리산, 추풍령 2	9
		충청남도	온양온천, 현충사, 천안삼거리, 공주, 부여, 갑사, 논산연무대, 홍성, 광천, 서산 어리굴젓, 장항, 대천, 조치원 13	낙화암, 계룡산 2	15
	경상도	공통	경상도 1		1
		경상북도	합천, 해인사, 경산, 경주,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첨성대, 석굴암, 포항, 포항제철공장, 구미, 김천, 직지사 14	울릉도, 성인봉, 토암산, 금호산, 추풍령, 포항 해수욕장 6	20
		경상남도	축석루, 마산, 진해 3	해운대 해수욕장 1	4
	전라도	공통	전라도 1		1
		전라북도	군산, 옥구, 이리, 전주, 금산사, 내장사 남원, 오작교, 진안, 무주구천동 10		10
		전라남도	여수, 순천, 목포 화엄사(구례군) 4		4
	기타			지리산	1
합계		83	28	111	

팔도유람에는 무려 남한의 주요도시와 경승지를 중심으로 111개의 지명이 들어가 있어 1970년대 주요 관광지와 주요 도시를 알 수 있게 하는 역사적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대중들의 지리적 인식범위를 남한전체 구석구석으로 넓혔기에 지리학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중가요에 지명이 들어가는 경우를 보면 지역공동체의 지리적, 공간적 인식이 대중들에게 영향을 주어 대중가요에 반영되거나 작사와 작곡자의 취향과 지리적 인식에 맞추어 노래가 만들어지면 대중들의 취향과 지리적 인식에 합치될 경우에 대중가요가 되고 애창곡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팔도유람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팔도유람의 당시의 인기곡, 애창곡이 된 이유는 시·군단위의 작은 지리적 공동체가 자신의 자연, 인문 지리적 경관이 대중적으로 인식되기를 소망하였고, 대중들의 여행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었기에 남한의 주요 지리적 소재를 모두 훑고 지나가는 대중가요가 유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소개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리전공자의 도움 없이 개인적인 취향과 정확하지 못한 정보에 기인하여 가요를 작사하여 지역간의 불균형과 잘못된 지명의 전달은 대중들이 공간적, 지리적 고정관념과 오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경상북도에 22지명(울산포함)을 가사에 사용한 것에 비해, 전라남도는 4지명(광주포함)만 간단히 가사에 사용하고 있어 팔도유람 가사



<지도 7> 팔도유람에 나타난 남한의 지명분포

에 지역적 차별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상북도에는 역사의 도시 경주가 있고 경부고속도가 개통 되어 주위의 관광지를 많이 소개했다고 하더라도 전라남도와 비교된다. 이는 경제발전이 서울~부산을 축으로 이루어진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강원도를 소개하는데 삼척 축석루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축석루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누각으로 삼척에는 비슷한 이름을 가진 죽서루라는 누각과 혼동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대중들은 대중가요의 박자와 리듬 등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따라 부르고 기억하기 때문에 잘못된 지명인식이 고착화 될 수 있으며, 삼천포와 같이 삼척시와 진주시의 지역공동체도 피해를 볼 수 있다. 팔도유람에는 구미 금호산이라 소개되었지만 금오산이 정확한 명칭이다. 물론 발음상의 이유를 들 수 있지만 팔도유람 가사를 모두 찾아봐도 금호산으로 명기되어 있어 반론의 이유가 적다고 할 수 있다. 1970년 최초의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오산은 구미가 팔도유람에 소개된 이유가 되었지만 그 시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였기에 금오산이 도립공원에 지정되고 구미와 금오산이 팔도유람에 소개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화엄사는 전라남도 구례군에 속하는데 전북의 지명을 노래하는 도중에 지리산 화엄사라는 구절이 나와서 대중들이 화엄사가 전북에 속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 물론 구례군이 1896년에 전라북도에서 전라남도로 행정구역이 바뀌었고, 구례군은 전라북도 남원의 생활권에 속하므로 착오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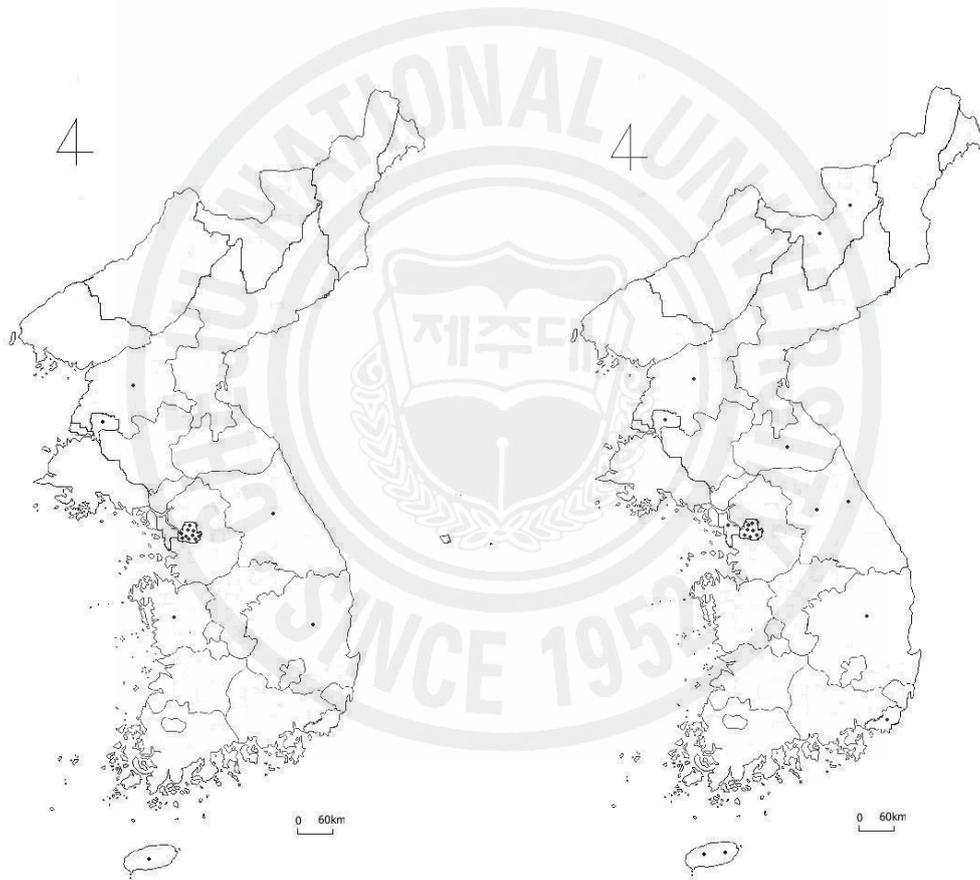
V. 1980년 이후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지명 분석

1. 지역적 분포

	행정구 분	행정구역	제목에 나타난 지명	노랫말에 나타난 지명	
남한	특별시	서울	강남 멋쟁이, 비 내리는 영동교, 신사동 그 사람, 추억의 테헤란로, 서울 부르스(명동, 강남), 서울 탱고, 서울의 달, 서울의 밤, 청량리 부르스, 광화문 연가(덕수궁, 정동), 59년 왕십리	우리 순이(서울), 나침반(종로, 명동, 청량리, 을지로, 미아리, 영등포), 남남북녀(남자는 고향, 여자는 서울), 신도불이(압구정, 영등포, 강남, 명동), 반지(마포대교)	
			광역시	부산	갈매기 사랑(부산항)
				대구	
				인천	갈매기 사랑(인천항)
				광주	
				대전	
	광역시	울산			
		경기도			
		강원도(남쪽)	춘천가는 기차	터(설악산), 홀로 아리랑(설악산)	
		제주도	제주도의 푸른 밤	터(한라산), 홀로 아리랑(제주도, 한라산)	
		충청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칠갑산	
		경상도	경상북도	독도는 우리 땅(울릉도)	홀로 아리랑(독도)
			경상남도		
		전라도	공동		남행열차(호남선)
			전라북도		
			전라남도		
	28	14	14		
북한	직할시	평양	평양 아줌마(모란봉)		
		나선			
	특급시	남포			
		자강도			
	9도	양강도		터(백두산), 홀로 아리랑(백두산)	
		강원도(북쪽)		홀로 아리랑(금강산)	
		평안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함경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7		2	5
		외국		사랑의 트위스트(상하이), 독도는 우리 땅(미국, 하와이, 일본, 대마도)	

	강 이름	제목	노랫말
행정구역별로 지역구분이 어려운 강	한강	한강(조용필), 북한강에서	터(한강)
	대동강		터(대동강), 평양아줌마(대동강)



<지도 8> 1981~2006년 대중가요
제목에 나타난 전국 지명분포

<지도 9> 1981~2006년 대중가요
노랫말에 나타난 전국 지명분포

<지도 8>, <지도 9>를 보면 서울의 조밀한 분포와 대비되는 지방의 산한 분포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충청북도, 대구, 대전, 광주 등 남한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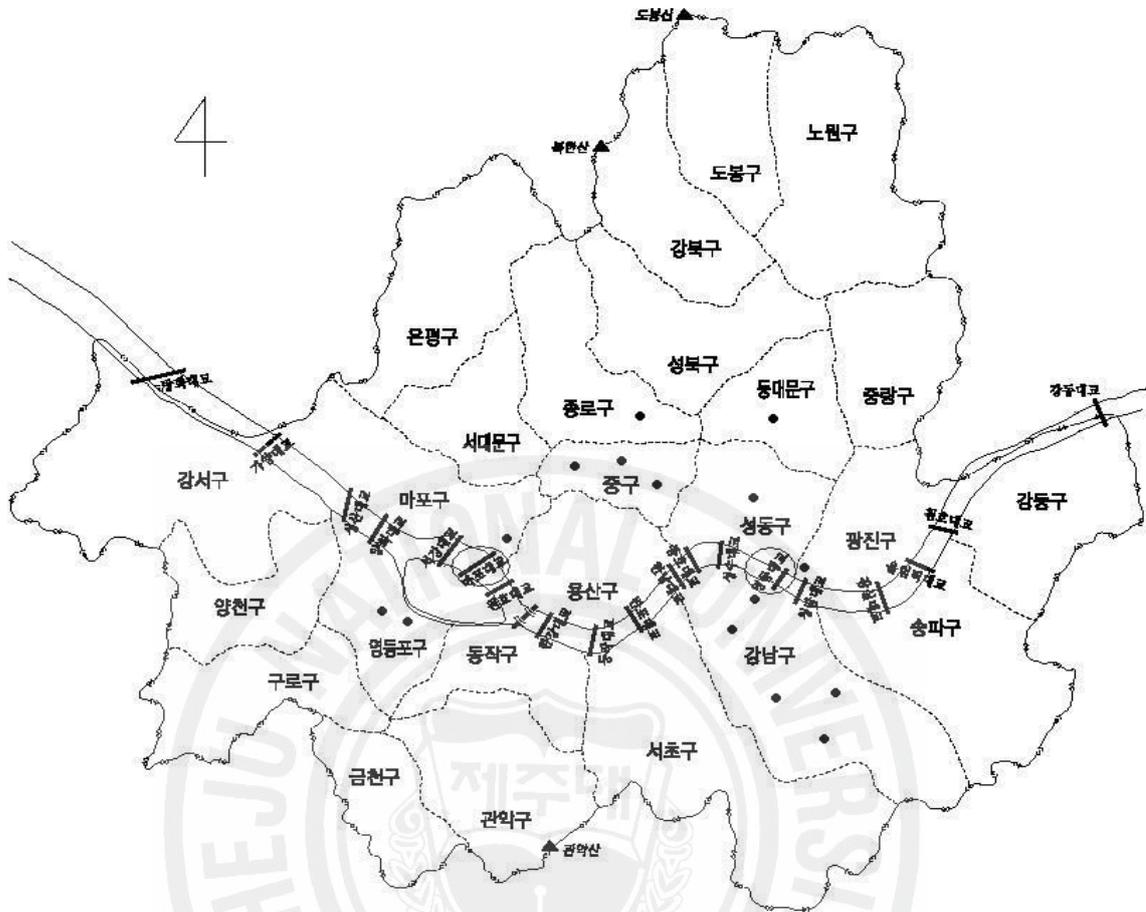
요행정구역에 관한 대중가요가 없고, 북한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평안남도, 양강도, 강원도 북쪽에만 대중가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공간구조에 반영되어 확실히 굳어졌음을 보여준다.

1980년부터 2006년까지 남한지역을 소재로 하여 대상이 된 28곡의 대중가요 중에서 16곡이 서울을 소재로 해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 서울중심의 공간구조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1~3곡 정도의 대중가요만이 사례로 나타나고 있어 유의미한 해석이 어렵다.

이 시기의 서울은 급성장을 하는 시기로 서울 전역으로 고층아파트가 확산되었고 수도권전철과 이어지는 지하철의 확충으로 서울의 인구를 주변의 위성도시로 분산시키게 되었다. 1970년대부터 영등포, 청량리, 신촌의 부도심이 윤곽을 드러냈고 1980년대에는 미아리, 길현동, 사당동, 천호동 등지에도 형성되었다. 이로서 서울은 단핵구조의 도시에서 다핵구조의 도시로 바뀌게 되었다. 한강 이남지역의 개발이 적극 추진되어 온 결과 시가지와 주거지구가 일찍 자리 잡은 한강 이북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는 강남구의 테헤란로는 고층빌딩과 각종 금융기관이 밀집하여 한강 이남지역 최대의 중심업무지구가 되었다(권혁재, 1996).

<지도 10>의 서울의 지도를 보면 한강 이남지역이 대중가요의 소재로 이용되는 빈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강남구와 영등포구를 두 축으로 해서 한강 남쪽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강남구에는 한강 이남의 최대 중심업무지구인 테헤란로가, 영등포구는 황량한 모래섬에서 국회의사당과 고층빌딩이 들어선 여의도가 대표적인 인문지리 요소이다. 이 인문지리 요소는 대중들에게 크게 각인되었을 것이다.

중국, 일본, 미국 등을 대중가요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1980년 이후 한국의 국제정세와 경제상황과도 흡사하다. 일본과 미국은 우방국이자 최대의 무역국으로서 한국에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중국의 경우는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은 이후 많은 무역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일본, 미국은 한국에 영향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대중들의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도 10> 1981~2006년 대중가요에 나타난 서울특별시 지명분포
(영동대교, 신사동, 테헤란로, 명동, 압구정, 마포대교 등)

2. 유형별 분석

1) 인문지리적 요소

(1) 행정명

	제목	노랫말
행정명	신사동 그 사람, 서울 부르스(명동), 서울 탕고, 서울의 달, 59년 왕십리, 춘천가는 기차, 제주도의 푸른 밤, 평양 아줌마	우리 순이(서울), 나침반(종로, 명동, 청량리, 을지로, 미아리, 영등포), 남남북녀(서울), 신토불이(압구정, 영등포, 명동), 홀로 아리랑(제주도)

행정지명에서 서울의 세부 행정지명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중가요에 사용되는 서울의 행정지명이 테헤란로, 강남, 신사동 등을 통해

보면, 전통적 중심지인 강북에서 강남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사동 그 사람》에서의 신사동은 서울의 한남대교를 따라 강남으로 들어가는 초입의 동리이다. 목멱산(지금의 남산) 남쪽의 물줄기를 고려 때에 사평도, 사리진이라 했으므로 모래의 별판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한강이다. 강남 개발 과정에서 등장한 신사동은 복고적 의미를 안은 「새로운 모래별판」의 의미이다. 이 지역은 경부고속도로의 진입로와 강변도로(88올림픽도로)의 교차로가 되어 교통의 혼잡지대이며 카바레와 주점이 많은 것이 특색인데 「희미한 불빛 사이로 오고 가던 그 사람... 아 내 마음 가져간 사람 신사동 그 사람」이란 가사 내용도 신사동 일대에 밀집한 카바레의 분위기를 묘사한 것이다(오홍석, 1995).

신사동이라는 지명이 대중가요의 제목으로 사용된 것은, 신사동이 그 시대의 화려하고 향락적인 공간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1980년대 이후에는 강남개발이 마무리 되어 영동대교와 신사동의 지명도가 높아져서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있는 지명소재가 되었다. 대중가요를 만들 때 전혀 동떨어진 지리적 인식을 바탕으로 지명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대중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므로, 개개인의 공간위에서 만들어진 지리적 인식범위를 바탕으로 대중의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지명도가 높아져야만 히트할 수 있는 대중가요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의 테헤란로는 서울특별시의 역삼동, 대치동, 삼성동, 잠실동을 통과하며 강남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왕복 10차선 간선도로이다. 국제금융과 무역이 활발하고 도시설계지구에 해당한다. 1972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가 한양 천도 578주년을 맞아 이름 없는 시내 59개 도로에 대한 가로 명을 지을 때 삼릉로가 되었다가 그 뒤 한국의 중동 진출이 한창이던 1977년 6월 17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 시장의 서울 방문과 테헤란 시와 자매결연을 기념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1995년을 전후해서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벤처기업이 많이 입주했다. 테헤란로가 대중가요에 등장한 것은 컴퓨터가 발달하고 정보통신이 급속히 발달한 당시의 시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중들이 그 시대상에 맞는 지역을 공간적으로 인지하면 대중가요도 같은 맥락에서 불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항구

	제목	노랫말
항구		갈매기 사랑(부산항, 인천항)

남한의 대표적인 항구인 부산항과 인천항이 대중가요의 소재로 등장한다. 부산항은 한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항구로 1876년 2월 27일에 근대항으로는 제일 먼저 개항한 한국 최대의 항만이자 내·외무역의 관문이다. 인천항은 인천 중구에 있는 항구로 수도 서울의 관문인 동시에 중부지방을 세력권으로 하는 서해안 최대의 무역항이다. 해외로의 승객수송이 선박에서 항공기로 바뀌면서 항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화물운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산항과 인천항은 대중들의 인식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부산과 인천은 모두 6대 광역시에 속한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역, 정거장

	제목	노랫말
역, 정거장	춘천 가는 기차	남행열차(호남선)

경춘선은 서울 청량리역과 강원 춘천역을 잇는 철도로 1939년에 개통된 단선철도이다. 북한강을 끼고 달리므로 경관이 좋고, 청평역, 가평역, 강촌역 부근에는 관광·휴양지가 많다. 1970년대까지 산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1980년대 이후 삶의 질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도시에서의 답답한 생활에 염증을 느끼며 전원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교외화, 탈도시화 현상이 나타났다. 경춘선 철도 주위는 경관이 좋고 서울에서 쉽게 갈 수 있기에 대중들의 휴식처가 되었고 대중가요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호남선은 대전, 논산, 호남, 나주평야를 연결하여 목포항에 이르는 간선 철도로서 농산물의 수송 및 연변 일대의 개발을 목적으로 부설한 것이다. 호남지방은 넓은 평야의 높은 인구부양력을 바탕으로 많은 인구가 살았지만, 영남지방과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화와 개발이 늦어서 인구유출이 심한 지역이

되었다. 호남지방에서의 인구유출은 서울로의 인구유입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호남선이라는 인문경관인 철도에 투영되어 대중가요가 불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호남선은 지역개발이 늦어 2003년 12월에 복선화가 되어 명절이 되어도 기차표가 없어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도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교량, 다리

	제목	노랫말
교량, 다리	비 내리는 영동교	반지(마포대교)

영동대교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청담동을 잇는 한강에 놓인 교량이다. 1970년 8월에 착공하여 1973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일원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한남대교와 잠실대교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1970년대 영동대교의 건설은 한강을 기준으로 강북과 강남의 연결성을 증대시켜 강남을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이후 강남개발이 거의 완료되었을 때, 영동대교는 강북과 강남을 잇는 지리적 이점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었고 대중들에게 크게 인식되었을 것이다.

마포대교는 서울 마포구와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잇는 교량으로 1968년 2월에 착공하여 1970년 5월에 준공되었다. 1968년부터 시작된 한강개발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어 황무지 상태의 여의도를 ‘서울의 맨해튼’으로 비약시키는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준공 후 수도권인 과밀한 인구집중과 경제성장에 따른 차량의 폭주로 한때 혹심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어 대교 상류 1 km 지점에 새로이 4차선의 원효대교를 1981년 10월에 건설하였다. 준공 당시는 ‘서울대교’라고 부르다가 1984년에 마포대교로 이름을 바꾸었다(서울특별시, 1988). 이는 마포와 여의도를 잇는 서울대교라는 상징적 의미가 1981년 원효대교의 건설로 인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1984년 서울대교라는 큰 스케일의 명칭이 주변지명을 사용하여 마포대교라는 작은 스케일의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고 1980년부터 2006년까지의 대중가요에 마포대교라는 지명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서울대교라는 지명보다 마포대교라는 지명이 대중들에게 더 각인된 것으로 보인다.

(5) 역사지명

	제목	노랫말
역사지명	칠갑산, 59년 왕십리, 발해를 꿈꾸며	

자연지리적 소재인 칠갑산은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부여)의 진산으로 백제의 얼이 담긴 역사적인 장소로서 역사지리적 소재로 대중가요에 사용되었다. 백제는 칠갑산을 사비성 정북방의 진산(鎭山)으로 성스럽게 여겨 제천의식을 행하였다. 그래서 산 이름을 만물생성의 7대 근원 七자와 짝이 난다는 뜻의 甲자로 생명의 시원(始源) 七甲山이라 경칭하여 왔다. 또 일곱 장수가 나올 명당이 있는 산이라고도 전한다. 충청남도의 중앙에 자리 잡은 이 산 동쪽의 두술성지(자비성)와 도림사지, 남쪽의 금강사지와 천장대, 남서쪽의 정혜사, 서쪽의 장곡사가 모두 연대된 백제의 얼이 담긴 천년사적지이다(부여군 홈페이지).

왕십리(往十里)는 조선시대 초에 무학대사(無學大師)가 태조(太祖)의 지시로 국도를 정하려던 때 한 농부가 소를 몰면서 “왕십리(往十里)하라”하며 북서쪽을 가리키므로 지금의 서울을 도읍으로 정하게 되었다는 고사에서 이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왕십리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도읍지에 속하지 않았지만, 점차 서울이 지리적 공간적으로 확장되면서 현재는 성동구의 중심지이며 서울 동부지구의 중심지의 하나로 바뀌었다. 지리적으로는 뚝섬 지구와 도심지를 연결하는 중간적 위치에 있다. 왕십리는 서울 동부지구의 중심지로 대중의 관심이 많은 지역이고, 세련되고 현대적일 것 같은 서울의 지명과는 거리가 멀어 대중들의 지명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발해[渤海]는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로서, 지리적으로 중국 동베이 지방의 동부, 연해주, 한반도 북부에 있었고 시기적으로는 698부터 926년까지 218년간의 역사를 남긴 채 사라졌다. 발해의 멸망에는 백두산 화산폭발과 이민족의 침입 등이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발해에 관한 문헌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그 시대를 고증하는 것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잊혀진 고대국가이다. 《발해를 꿈꾸며》는 1990년대 중반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부른 대중가요로 한민족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고 남한에서는 호남과 영남으로 나뉘어 서로 지역감정이 팽배하던 시절에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만주와 연해주까지 시야를 넓혀야 함을 노래하고 대중들이 이에 호응하였다.

(6) 기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라는 대중가요에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목포, 개성, 해주, 청진, 평양의 10개 행정지명이 나온다. 여기에서 1절에 나오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은 경부선 철도상의 주요도시를, 2절에 나오는 서울, 대전, 광주, 목포는 호남선 철도상의 주요도시를, 3절에 나오는 개성, 해주¹⁷⁾, 청진¹⁸⁾, 평양은 북한의 주요 도시를 소재로 해서 노래하고 있다. 님을 찾아 주요도시를 찾아보지만 찾지 못하고 북한은 가지도 못한다는 내용의 노래가사는 사랑과 이별의 전형적인 대중가요를 보여주고 있다. 지리적으로 대도시와 지방의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대중가요의 노랫말이 쓰여 있어 대중의 인식이 뚜렷한 장소를 대중가요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이 보인다.

2) 자연지리적 요소

(1) 강, 하천

	제목	노랫말
강, 하천		터(압록강, 한강), 평양아줌마(대동강)

대중가요의 제목으로 사용된 하천은 발견되지 않고 압록강, 한강, 대동강이 노랫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어 자연경관인 하천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중들의 압록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강과 대동강은 각기 남한의 수도인 서울과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대표하는 하천이므로 대중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바다, 바닷가

	제목	노랫말
바다, 바닷가		터(동해), 홀로 아리랑(동해), 무조건(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바다를 소재로 해서 대중가요를 부르는 빈도가 매우 적어지고 불려진다 하더라도, 동해, 동해 바다 등의 노랫말을 통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적은 비중으로 불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다른 서해나 남

해에 비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조건》이라는 대중가요에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이 노랫말로 사용되어져서 바다에 대하여 관심이 세계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3) 산

	제목	노랫말
산	칠갑산	평양아줌마(모란봉), 터(한라산, 백두산, 설악산), 홀로 아리랑(금강산, 백두산, 설악산, 한라산)

칠갑산은 충청남도 청양군에 있는 산으로 청양군의 중심부에 있다. 차령산맥에 속하며 계곡의 물은 금강으로 흘러가며 1973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칠갑산이라 불리는 이유는 계곡이 깊고 급하며 7곳에 명당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칠갑산은 “콩밭매~는 아~낙~네~야 베적삼이 흙뻑 젖는~다/
무슨 설움~ 그리 많~아포기마다 눈물~ 심누~나/ 홀어머니 두고 시집 가던 날
칠갑산/ 산마루~에 울어 주~던 산~새~소~리만 어린가슴속을 태웠~소”의 노랫말과 같이 먹고 입을 것 변변치 않은 산골 살이 시름 달래며 산비탈 밭 일구어 살아가는 촌부의 한을 우리민족의 한으로 품어 절절이 풀어낸 슬픈 곡조어린 노래로, 작곡가는 적막한 분위기에 휩싸여 노래를 만들게 됐다고 한다. 대중들은 칠갑산을 미리 안 것 아니라 대중가요를 통해 지리적으로 칠갑산과 청양군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평양아줌마의 모란봉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실향민들과 이산가족에게는 상징적인 자연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백두산, 금강산, 설악산, 한라산과 같이 대한민국의 주요 산이 대중가요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이 자연경관을 대중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고개

대중가요가 시작된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고개를 소재로 한 대중가요가 불려졌으나 1980년대 이후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는 전통 민요인 아리랑 고개부터 시작된 한민족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자연경관인 고개가 세계화 시대에서 보편적 가치에 밀려 대중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 지역성, 특수성, 민족성이 거대한 세계화라는 보편성에 매몰되지 않고 부분적으로나마 명맥을 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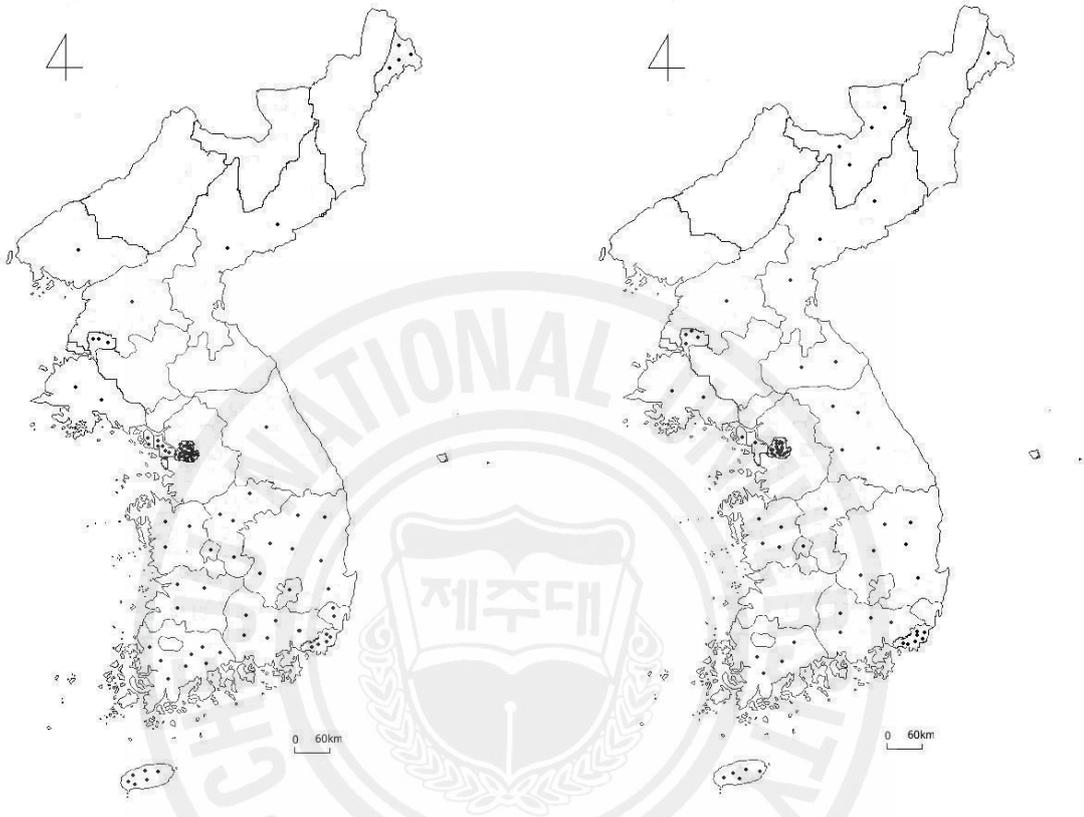
(5) 섬

	제목	노랫말
섬	독도는 우리 땅(울릉도)	홀로 아리랑(독도, 제주도)

《독도는 우리 땅》은 1980년대 초반에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해친다는 명목으로 금지곡에 오른 대중가요로서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인해 발표된 6·29 선언으로 금지곡에서 풀렸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현재까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 반일감정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대중들의 관심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있을 때마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민족주의로 표출되어 대중가요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남한에서 가장 큰 섬으로 2006년까지는 남한의 9개 도청이 있던 곳 중의 하나이고 현재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대중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섬에 관련한 대중들의 인식이 매우 적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지 본토부의 보편적 가치 앞에서 섬이라는 특수성은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VI. 한국 대중가요에 나타난 지명 분석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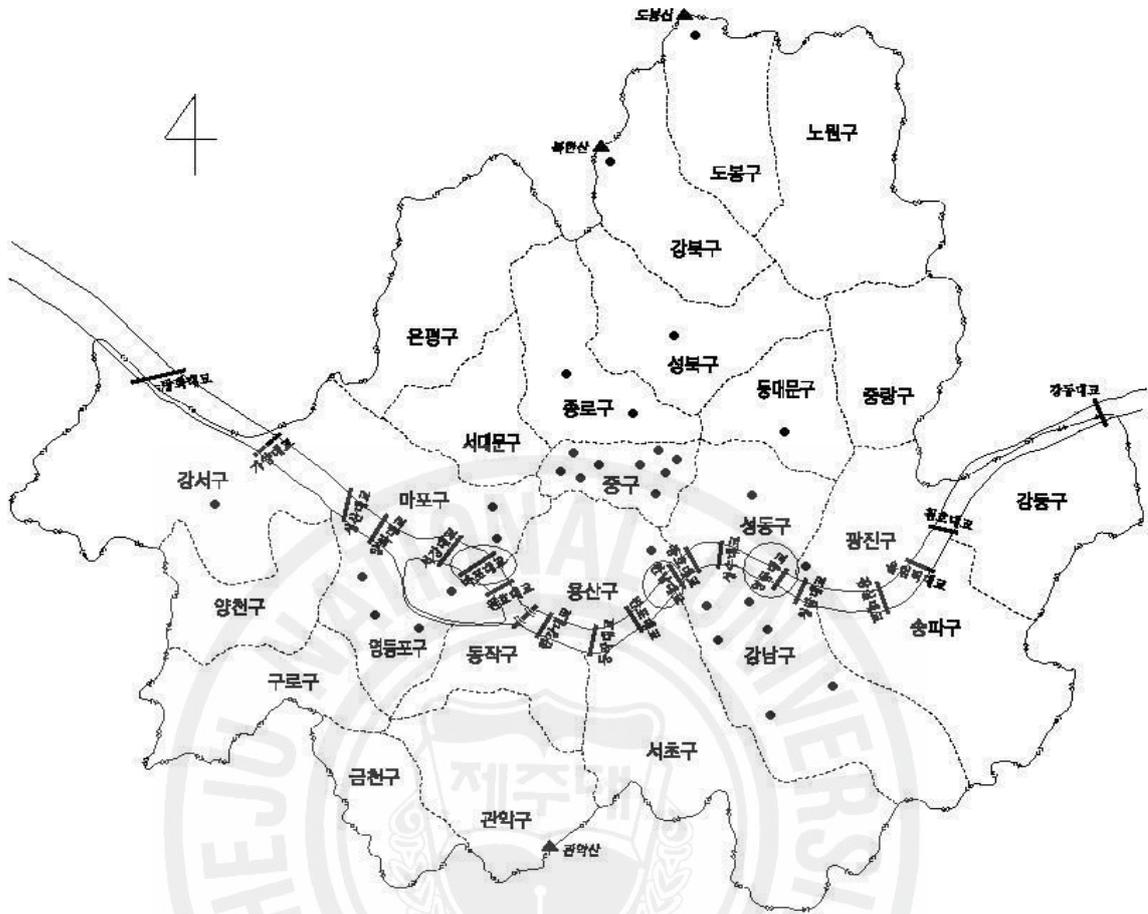
1. 지역적 분포



<지도 11> 전 기간 대중가요 제목에 나타난 전국 지명분포 <지도 12> 전 기간 대중가요 노랫말에 나타난 전국 지명분포

<지도 11>, <지도 12>를 살펴보면 남한이 북한보다 더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평양과 양강도가 조밀하게 나타난다. 이에 반해 함경북도, 황해북도, 자강도, 남포특급시의 경우에 한 사례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서울이 매우 조밀한 분포를 보이고 부산도 조밀한 분포를 보인다. 이에 반해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도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충청, 호남, 영남지방은 거의 균등한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조밀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지명을 대중가요의 소재로 사용하는 사례수가 적다. 이는 1945년



<지도 13> 전 기간 대중가요에 나타난 서울특별시 지명분포
(종로, 미아리고개, 영등포, 마포, 테헤란로, 압구정 등)

에 남과 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이다. 1945년 이후에 남한에서 만들어진 대중가요의 대부분은 남한의 지명이 대부분 사용되었다. 지리적, 공간적으로 수도인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에 의해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 소외되고 있었다고 분석할 수도 있다. 남한과 북한은 서울과 평양의 지명이 대중가요에 많이 사용되었다. 서울과 평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이기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도 13>에서 서울만을 살펴보면 중구를 중심으로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고, 외곽으로 갈수록 조밀하지 않은 패턴을 보인다. 이는 서울의 공간적, 지리적 확장과 무관하지 않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서울의 공간적 한계는 현재 중구에 위치한 경복궁을 중심으로 하여 사대문에 한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사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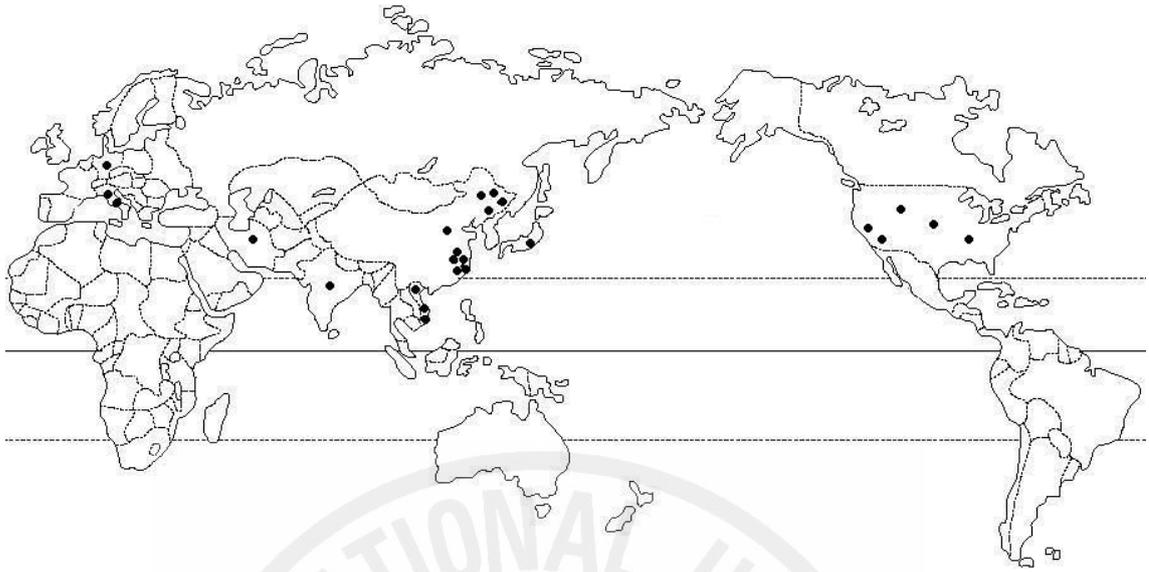
밖으로 서울의 외연적 확장이 일어나면서 동대문구, 마포구 등 주변지역으로 영향권이 확대되었다. 1970년 이후 한강이남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서울의 공간적, 외연적 확장은 매우 빠르게 진척되었다.

대중가요의 시작부터 1960년까지는 조선시대의 궁궐과 사대문, 현재의 중구의 지명과 그 주변지역 중심(한강 이북)으로 대중가요가 불렸으나, 1960년 이후부터는 서울의 다른 지역의 지명과 한강 이남의 지명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1980년 이후부터는 한강 이남의 지명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는 패턴을 보인다.

영등포구(여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축과 강남구를 중심으로 하는 축으로 대중가요에 지명이 사용되는 패턴을 보인다. 영등포구 축에는 마포대교를 강남구 축에는 한남대교(제3한강교)와 영등대교를 건설하여 한강이라는 지리적 장애를 극복하게 해 주었다. 영등포구에는 여의도가 편입되면서 공간적으로 확장이 이루어졌으며, 강남구는 한남대교가 경부고속도로의 관문역할을 해주어 교통의 확장을 가져왔다. 용산구는 서울의 중심이고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되는 장소로서 용산구를 중심으로 한강 이북과 이남의 중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이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용산구는 대중가요의 소재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군부대가 넓게 자리 잡고 있어 대중들의 관심과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대별로 서울의 중심인 중구와 그 주변이 다루어지고, 영등포구(여의도)와 강남 두 축을 중심으로 대중가요가 불려지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연구의 대상을 확장시켜보면 버제의스 동심원 지대이론¹⁹⁾과 호이트의 선형이론²⁰⁾이 대중가요 지명 분석에서도 유의미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도 14>를 통해 대중들이 세계를 인식하는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을 중심으로 지리적, 공간적으로 가까운 나라인 중국, 베트남, 일본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먼 나라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한국과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접촉이 많지 않은 지역은 대중가요로 불려지지 않아 대중들의 지리적 인식이 편향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간도라는 빼앗긴 영토와 인구압에 의한 만주로의 반강제적 이주정책, 독립운동을 위한 이주 등에 의해 대중가요가 불려 졌고,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를 중심으로 대중가요가 불려졌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베트남 전쟁



<지도 14> 대중가요에 나타난 세계지명 분포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상하이, 간도, 만주, 이태리, 월남 등)

의 참전으로 인해 1961년부터 1980년까지의 시기에 대중가요가 집중적으로 불려졌다. 미국과 유럽은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산업이 발전된 국가에 대한 부러움과 이상향으로서의 소재가 강하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인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 등이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유럽은 라인강, 이태리 등 지명도가 높은 지명이 사용되었다. 외국의 지명을 소재로 하는 대중가요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의해 외국에 대한 동경과 환상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독립에 대한 열망, 베트남 전쟁과 같이 한민족 전체 또는 남한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큰 사건이 점차 사라져 대중의 관심이 약해지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2. 유형별 분포

1) 인문지리적 요소

(1) 행정명

행정명은 대중가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행정명이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대중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고 접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서울, 부산과 같이 대도시의 행정명이 시기가 지날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어 대도시 집중현상이 대중가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기별로 대중가요에 사용된 행정명의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대중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항구

대중가요의 소재로 항구와 관련된 지역지명을 사용한 경우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1960년 이전에는 부산과 인천과 같은 초대형 항구가 발달하지 않아 목포, 흥남과 같은 비교적 소규모의 항구도 대중들의 인식에 남아 있었다. 또한 지역적 다양성에 있어서 북한의 항구도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는 목포, 흥남과 같은 소규모 항구는 대중들에게 잊혀져 갔고 부산항과 같은 대형항구만이 기억되어졌으며, 특이하게도 베트남 전쟁과 관련하여 베트남의 수도였던 사이공 항구가 대중가요에 등장하였다.

(3) 철도

철도를 소재로 한 대중가요는 1960년 이전에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요도시와 항구를 중심으로 철도가 부설되면서 경인선, 경부선, 호남선 등의 철도에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대체운송수단인 자동차의 보급이 적었기에 철도에 대한 관심은 유지되었다. 하지만 1960년부터 1980년까지는 철도의 시대가 아닌 자동차의 시대로 경부고속도로(1970년 개통) 등 도로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대중이 관심이 새로운 교통수단이 자동차로 이동하게 되었다. 1980년 이후 대중가요는 철도교통의 유용성에 대한 관심이 아닌 과거의 추억 정도로 대중가요에 등장하여 고속열차가 놓인 경부선이 아닌 단선으로 남아있는 호남선과 경춘선을 다루고 있다. 2004년에서야 호남선은 복선으로 바뀌었고 경춘선은 현재까지도 단선으로 남아있다.

(4) 교량, 다리

대중가요가 흥행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들이 교량을 인식하려면 큰 역사적 사건이나 경제개발, 지역개발과 같은 특수한 시대상이 있어야 한다. 부산의

영도다리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들의 슬픔과 이산가족의 그대로 담겨있어 대중가요의 소재로 부족함이 없었고, 1970년대 영동대교, 한남대교 등이 개통되어 서울의 강남개발이 시작되고 가속화되었기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중들에게 큰 무리 없이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다.

(5) 역사지명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명을 통해 대중들의 관심을 알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불국사, 석굴암과 같은 지명은 불교나 신라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알 수 있다. 또한 옛 지명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오랜 사회적 불안과, 일제강점기, 전통 유지에 등한했던 관계로 지명을 붙이게 된 시기나 계기가 전해지지 않는 것이 많고, 다른 지명으로 바뀐 것도 많다. 삼각산, 백마강과 같은 지명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지명으로 현재는 북한산, 금강이라 한다.

2) 자연지리적 요소

(1) 강, 하천

강과 하천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는 세월이 지날수록 강에 관련된 대중가요의 수는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중가요시작부터는 1960년까지는 한강, 백마강(금강), 낙동강, 영산강, 대동강 등 넓은 유역권을 가진 강은 대중가요의 소재가 되었지만 1980년 이후로는 남한과 북한의 수도인 서울과 평양을 통과하는 한강과 대동강을 위주로 대중가요가 불려지고 있다. 이는 중앙집권식 개발계획과 서울 중심의 경제, 문화발전 등에 의해 지역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2) 바다, 바닷가

바다와 관련된 대중가요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다. 대중가요시작부터 1960년 전까지는 원산의 명사십리, 부산의 해운대, 서귀포의 칠십리 해안, 태평양과 같이 다양한 지리적 소재를 사용해왔지만, 1960년 이후에는

주로 동해를 사용하고 있어 지리적 소재가 숫자상으로도, 지리적 다양성 측면에서도 줄어들고 있다.

(3) 산

산은 시·군 단위, 좁게는 마을 단위로 지역공동체와 오랫동안 함께해 온 대표적인 산이 있기 마련이며, 지역공동체의 산이 전국적인 대중성을 확보하게 되면 대중가요로 불리게 되어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각 시대별로 어느 지역에 위치한 산이 대중가요로 불렸는지 확인한다면 대중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1960년 이전에는 백두산, 한라산과 같은 대중적 관심이 높은 산이 주로 등장하다가 1960년 이후에는 지역적 색채가 강한 월출산, 용두산, 칠갑산과 같은 산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지역공동체의 산이 전국적인 대중성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고개

고개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많은 외침과 내전을 겪으면서 승리 혹은 패전의 역사가 지리적 공간인 고개에 투영되었다는 것은 대중이 오랜 기간 기억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고개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그 시대의 대중가요의 소재로 사용된 고개를 통해 시대상과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미아리 고개로서 한국전쟁으로 남한의 유명 인사들이 납북되는 과정과 슬픔이 미아리 고개라는 공간을 통해 대중가요에 반영되었다.

(5) 섬

대중가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섬은 제주도와 같이 섬 면적과 인구의 규모가 큰 경우, 울릉도, 독도, 연평도와 같이 영토분쟁으로 인해 민족적 감정이 응축된 곳, 강화도와 같이 수도권 근처에 위치해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곳 등에서 대중가요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대중적인 관심이 쏠린 지역이라는 것이다. 시기별로 보면 현대로 올수록 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VI. 결론 및 제언

조선시대 말 갑신정변의 신문화 도입을 전후해서 대중가요가 생겨난 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중가요라는 용어가 정립되었다. 일제강점기, 8·15 해방, 미국과 소련의 군정시기, 한국전쟁, 남북분단, 군사독재, 경제발전 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대중가요는 민족의 애환을 함께 겪었다. 지역공동체가 인식하는 지명이 거대공동체가 인식하는 지명으로 전환되고, 대중전체가 인식해서 대중가요에 나타나는 지명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 영도다리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것처럼, 남북분단, 경제발전과 같은 큰 사건에 의해 지명이 대중가요의 전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1960년 이전의 대중가요는 지역명과 지역과 관련한 고유명사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기로 지방색이 강한 시기이다. 일제의 저항하는 독립군과 일제의 산미증식계획 등에 희생된 농민들이 만주와 연해주 등으로 쫓겨나면서 조국의 독립과 고향을 그리는 대중가요가 불려지게 되었다. 1930년대의 만주사변과 1940년대의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여자는 정신대로 남자는 군대로 강제 징집되어 일본과 동남아시아로 끌려가는 등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고향을 그리는 대중가요가 많이 불려지게 되었다. 또한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으로 인해 북한을 고향으로 둔 많은 실향민과 이산가족으로 인해 북한에 관한 대중가요가 많이 불려졌다.

1961년부터 1980년까지의 대중가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지방의 지명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의 숫자가 줄어들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대중가요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70년대 후반의 팔도유람을 보면 경상북도 여러 지역이 매우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으며, 포항, 구미 등 신생공업도시들이 대중가요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제발전이 최우선의 목표였던 시기였기에 지명 대신 제3한강교와 같은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명칭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서울 이외 지역은 대중가요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1981년 이후의 대중가요는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과 단 방향 대중매체의 발달로 지명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가 더욱 줄어들었다. 지방의 세부지명이 줄어들고 서울의 세부지명들이 대중가요에 늘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등 모든 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공간구조에 반영되어 확실히 굳어졌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2000년 이후로는 개인 미니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등장으로 일방적으로 대중들이 정보공급을 받는 단 방향 매체시스템에서 개개인이 모두 정보의 공급자이면서 수요자기도 하는 양방향 매체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지명을 소재로 하는 대중가요의 변화는 현재진행형으로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대중가요에 사용되는 외국지명을 분석하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먼 나라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와 같이 한국과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접촉이 적은 지역은 대중가요로 불려지지 않아 대중들의 지리, 공간 인식이 편향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현대로 오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지명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지역명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중국, 일본, 미국 등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만이 대중가요로 불려 지리적 편향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지명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가 급속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의 지명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의 수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 연구는 국가적으로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지명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도시나 지역 단위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보다 작은 스케일의 지역지명이 대중가요에 등장하는 사례가 많을 경우, 지역단위의 연구가 필요하다.

- 1) 지명과 지역명을 혼용해서 사용했음.
- 2) 12.12쿠테타와 5 18 광주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여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은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다. 이런 불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Sports, Sex, Screen이라는 3S 정책이라는 것을 실시하였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만을 이러한 3S로 해소하였다. 학자들은 한국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스포츠 붐은 이때부터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 3) 남한과 북한의 행정구역은 2008년을 기준으로 했음.
- 4) 동백섬은 북쪽으로 낙동강·남강을 끼고 1999년 3월 9일 부산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되었다. 해운대해수욕장 서쪽에 있으며, 형태가 다리미를 닮았다 하여 '다리미섬'이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독립된 섬이었으나 오랜 세월이 지난 퇴적작용으로 현재는 육지화된 섬으로, 해운대해수욕장의 백사장과 연결되어 있다. 옛날에는 동백나무가 많았으나, 현재는 소나무가 울창하다.
- 5) 만리포는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위치함.
- 6) 백화산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84m로, 금북정맥에서 서쪽으로 뻗은 능선이 팔봉산(326m)에 이어지고, 다시 백화산까지 산줄기가 이어진다.
- 7) 명사십리[明沙十里]는 함경남도 원산시의 동남쪽 약 4km 지점에 있는 모래톱. 모래가 곱고 부드러운 해수욕장과 해당화로 유명하다.
- 8) 목단강은 중국 헤이룽장성 남동부에 있는 도시로 송화강의 지류인 무단강 상류 연안에 위치해 있다. 3개 철도의 교차점에 있다. 19세기에 무투·무자철도가 개통될 때까지는 외진 마을이었으나, 일본이 만주를 지배하던 기간에 발전하였다. 본래 임업 중심이었으나, 고무·기계·석유·화학·전기기구·시멘트·방직·목재 등의 공업이 활발해졌다.
- 9) 벵갈루루는 인도 카르나타카 주의 주도로서 데칸고원 남부산지의 해발고도 950m 지점에 있다. 오랫동안 옛 마이소르왕국의 수도로 번영하였으며, 1831~1881년에는 영국 통치부의 본부 역할을 했다. 1881년 인도국왕이 복위한 후 1947년 인도 공화국에 통합될 때까지 영국의 통치부와 군대가 주둔했다.
- 10) 단장의 미아리 고개 1절가사: 미아리 눈물고개 임이 떠난 이별고개/ 화약연기 앞을 가려 눈 못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 줄로 두 손 뽕뽕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 많은 미아리고개.
- 11) 당인리 발전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에 있는 화력발전소이며 설비용량 388MW이다. 1969년 이전에는 당인리 발전소라고 하였고 현재는 서울발전소라 한다. 1929년 6월 당시의 경성전기주식회사에서 건설에 착수하였다.
- 12) 오륙도는 1972년 6월 26일 부산기념물 제22호로 지정되었다. 예로부터 부산의 상징물이었다. 영도구의 조도(朝島)와 마주보며, 부산만 북쪽의 승두말로부터 남동쪽으로 6개의 바위섬이 나란히 뻗어 있다.
- 13) 송학사가 있는 보문산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외 11개 동에 걸쳐 있는 산으로 높이는 457.6m이고, 보문산의 녹음(綠陰)은 대전팔경의 하나로 꼽힌다.
- 14) 구례는 1963년에 읍이 되었다. 훌륭한 관광지를 두고서 있으면서도 농촌중심의 테

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남원의 세력권에 들어 있다. 구례군은 원래 전북에 속했다가 1897년에 전남으로 넘어왔다. (권혁재, 1996, 한국지리, 지방편, 399~400p)

15) 하동은 섬진강변의 주요하항으로 성장하여 한때 도후부사가 주재했으며 1939년에 읍이 되었다. 이곳의 정기시장도 크게 열렸었다. 경전선철도가 통과하고 진주·순천·남원·남해 방면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이지만 남해고속도로에서 멀리 떨어져서 도시의 발전이 느리다.(권혁재, 1996, 한국지리, 지방편, 566p)

16) 섬진강은 구례에서부터 지리산에서 뺀어 내린 산지를 가로지르며, 광양만에 이르기까지 전남과 경남의 도계를 이루고 있다.(권혁재, 1996, 한국지리, 지방편, 348p)

17) 해주시 [海州市]는 황해남도 남해안 중앙에 있는 시로 해주항이 있다.

18) 청진시(淸津市)는 함경북도의 도청 소재지이다. 북한에서는 평양시, 남포시에 이어 3번째로 큰 도시이다.

19) 버제스는 사회적 지위의 향상, 도심으로부터의 과문형, 주거이동, 도시내부의 거주지 공간분화현상을 시카고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관찰한 후 과문형의 사회적 도시공간발전 행태를 상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도시상의 발전과정을 자연생태계의 침입, 경쟁, 천이의 과정에 비추어 설명을 일반화한 이론이 동심원적 지대모형이다. (김 인, 2003, 도시지리 학원론, 227p.)

20) 도시중심부에서부터 외곽으로의 거주지형성과 사회지역의 공간분화현상을 도심을 축으로 거주지의 지역분화가 부채꼴 모양의 sector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도심으로부터 방사하는 교통축을 따라 접근성이 달라지면 그 결과 지가의 분포가 주택입지에 영향을 미쳐 주거지는 교통축을 따라서 선형으로 발달하게 된다. (김 인, 2003, 도시지리 학원론, 228p~229p.)

<참고문헌>

- 국애란, 2002, 남·북한 세계지리 교과서 비교 분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혁재, 2004, 한국지리 총론편, 법문사.
- 권혁재, 1996, 한국지리 지방편, 법문사.
- 김경수, 1998, 영산호 주변 지역 간석지 개간과정과 경관변화, 문화역사지리.
- 김 인, 2003, 도시지리학원론, 227p~229p.
- 김정미, 2003, 김포시 지명에 대한 지리학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두산동아 편집위원, 2008, 두산동아 백과사전, 두산동아.
- 민충환, 2000, 대중가요 노랫말에 나타난 언어의 특이점, 부천대학.
- 박경준, 2003, 동, 서해안 지역의 지명 비교 사례 연구-화성시와 강릉시의 자연촌락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영신, 2004, 남북한 고등학교 지리과 교육과정 및 세계지리 교과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태화, 1999, 영남지방 지명에 관한 연구-창녕군, 봉화군, 남해군의 경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권 1호, 11~24.
- 브리태니커 편집위원, 2008,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브리태니커.
- 서울특별시, 1988, 서울의 다리, 서울특별시.
- 손국자, 1998, 평야지역과 산지지역 촌락지명이 비교연구 -창녕군과 청송군의 경우,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손태도, 2001, 현대 대중 매체문화와 구비민요와 대중가요,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송기현, 2005, 대중가요를 위시한 각종 노래가사에 나타난 산의 이미지 연구, 한국산림휴향학회지.
- 세광음악출판사 편집위원, 2006, 대중가요대백과, 세광음악출판사 (통계자료 추출).
- 세계지리학회 조직위원회, 2000, 한국지리, 교학사, 337~341, 355~360, 371~372.
- 아름출판사 편집위원, 2006, 가요반세기, 아름출판사 (통계자료 추출).

- 아름출판사 편집위원. 2007, 대중가요대백과, 아름출판사 (통계자료 추출).
- 양보경·정치영, 2006, 한국 지명의 업무체계와 지명 업무의 활성화 방안, 문화역사지리 18권 3호, 73~90.
- 예경희, 1998, 충북 충주호의 지명분쟁, 도시·지역개발연구6권, 9~19.
- 예경희, 2005, 충청북도 청주지역의 풍수지리와 풍수지명, 청대학술논집6권, 475~516.
- 오홍석, 1995, 땅이름 나라 얼굴, 고려원미디어.
- 이동순, 2006, 번지 없는 주막-한국 가요사의 잃어버린 번지를 찾아서, 선.
- 이영미, 2006, 한국대중가요사, 민속원, 20~88.
- 이영희, 2006, 지명 속에 나타난 북한 개성시의 자연경관특성, 대한지리학회 41권 3호, 283~300.
- 이은숙, 1998, 이민문학을 통해서 본 1930년대 북간도 조선이민의 공간인지, 문화역사지리.
- 이형대, 2005, 일제시기 대중가요와 식민지 여성현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 이혜은, 2000, 지명을 통해 나타난 지역문화, 녹우연구논집 39호, 99~117.
- 장재훈, 원학회, 최재삼, 2001, 지리부도, 천재교육.
- 전혜경, 2007, 19세기말 우리나라 지리서에 나타난 세계국가지명 비교연구: 여재활요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 조운동, 박정열, 2001, 대중가요 가사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정서 탐색: 해방이후부터 1996년 이후까지의 가요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
- 최석주, 2003, 북한의 지명 연구-북한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7권, 235-251.
- 최영아, 1999, 부산의 자연마을 지명 유래와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창호, 2000, 민족수난기의 대중가요사, 일월서각 (통계자료 추출).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3. 우리 국토에 새겨진 문화와 역사, 논형.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8. 지명의 지리학, 푸른길, 15~32.

금영미디어, <http://www.zeuskorea.co.kr/>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gimpo.airport.co.kr/index.jsp>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metro.daejeon.kr/>
마포구 홈페이지, <http://www.mapo.go.kr/>
목포시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00_main/
부여군 홈페이지, <http://www.buyeo.go.kr/>
사천시 홈페이지, <http://www.sacheon.go.kr/main/>
안성시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
영상물등급위원회, <http://www.kmr.or.kr/>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창녕군 홈페이지, <http://www.cng.go.kr/>
철도청 홈페이지 <http://www.korail.com/>
태진미디어, <http://www.tjmedia.co.kr/>
포항시청 홈페이지, <http://www.ipohang.org/>

<abstract>

An Analysis of Place Names appeared in Korean popular songs

Son, Jeong-sam

Geograph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ang-Hak 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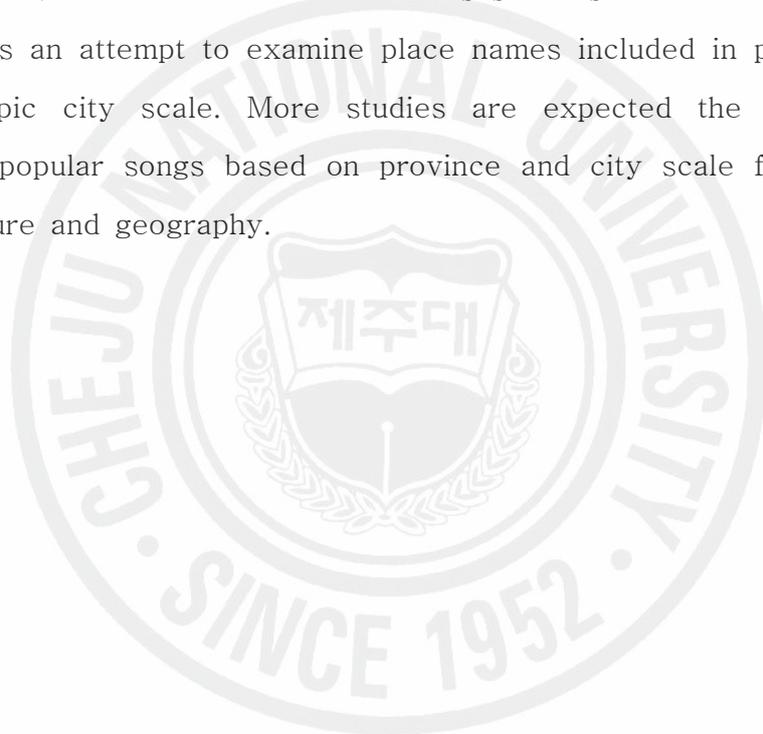
The Korean popular songs have been studied in the fields of sociology, Korean literature etc. with foci on the whole society, words or dialects. This research analyzes place names appeared in Korean popular songs. Since the geographic research has rarely been conducted on popular songs, it is an attempt to examine popular songs with geographic perspective.

For this, 250 popular songs including place names were extracted from 2000 popular songs. These song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 one with place names in their titles and the other in their lyrics which were again divided into 3 periods. These songs are examined in their regional distribution and the distributions of each type, human and physical geographic element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number of popular songs including the names of Seoul or other cities in the Capital region has been increasing as the society has been urbanized and industrialized. As such, the

number of the popular songs including the names of cities other than Seoul and the Capital region has been decreasing. For the national names, China, Japan, and America have been prominent in increasing appearance which could be based on the close relationship with Korea geographically, economically, and culturally. It reveals a geographical bias in referring place names in popular songs. In addition, the number of the popular songs including place names both Korean and foreign countries is decreasing.

While there have been attempts to study the place names in popular songs, they have not looked into the details such as the name of the cities.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xamine place names included in popular songs in microscopic city scale. More studies are expected the place names included in popular songs based on province and city scale for combining popular culture and geography.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8.